

생보사 장래 손익전망 및 향후과제



2005. 3. 21



세미나 순서

1. 인사말 : 김 창수 원장 (보험개발원)
2. 축사 : 윤 용로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 사회 : 김 헌수 교수(순천향대학교) >
3. 주제발표 (15:10~16:00)
 - 박 상래 본부장 (보험개발원)
4. 토론 (16:00~16:40)
 - 오 창수 교수(한양대학교)
 - 박 현문 전무(삼성생명)
 - 김 영진 부사장(AIG생명)
5. 질의응답 (16:40~17:00)



목 차

1. 생명보험 주요 지표

2.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3. 장래 손익전망

4. 향후 과제



I. 생명보험 주요 지표

1. 금융시장

2.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

3. 수지 및 손익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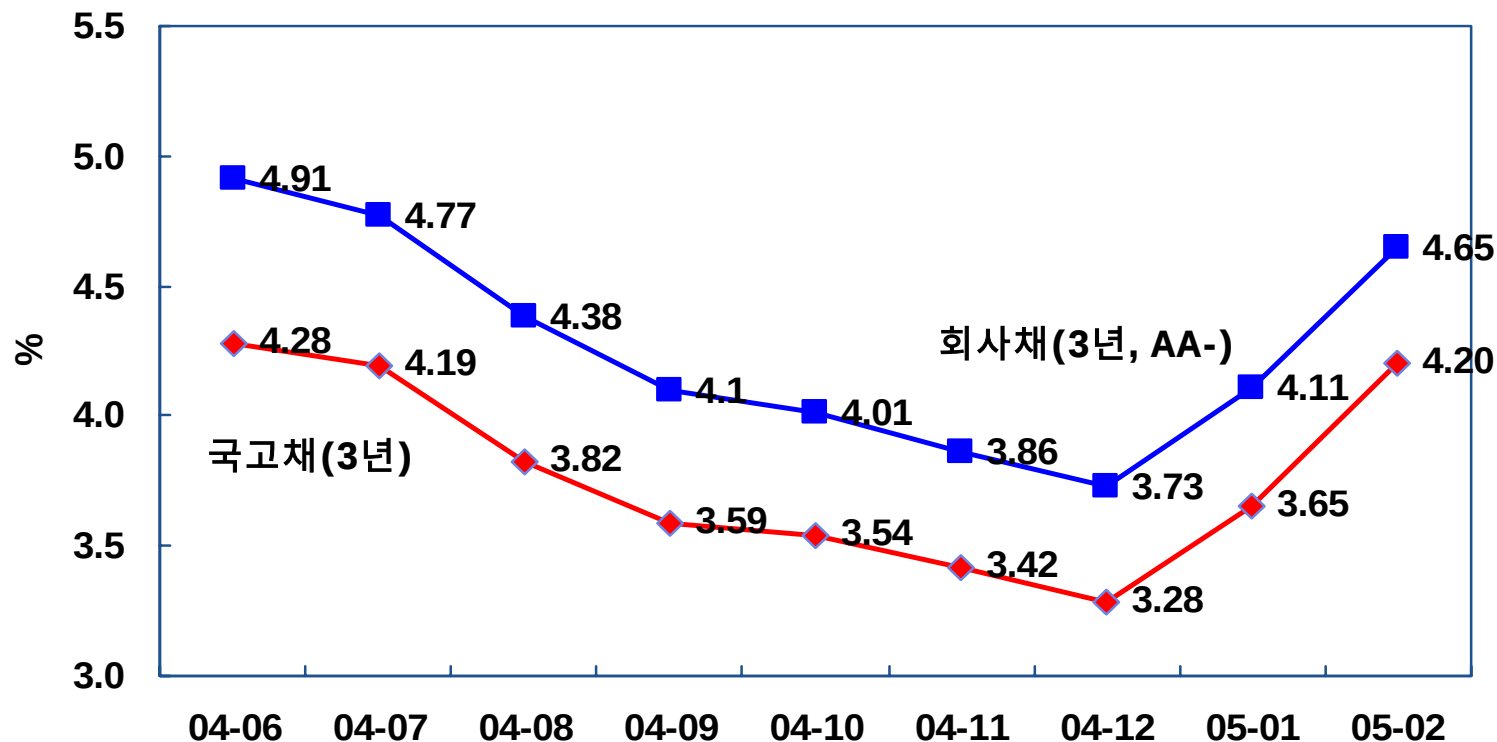
4. 자산운용

5. 경영효율

6. 지급여력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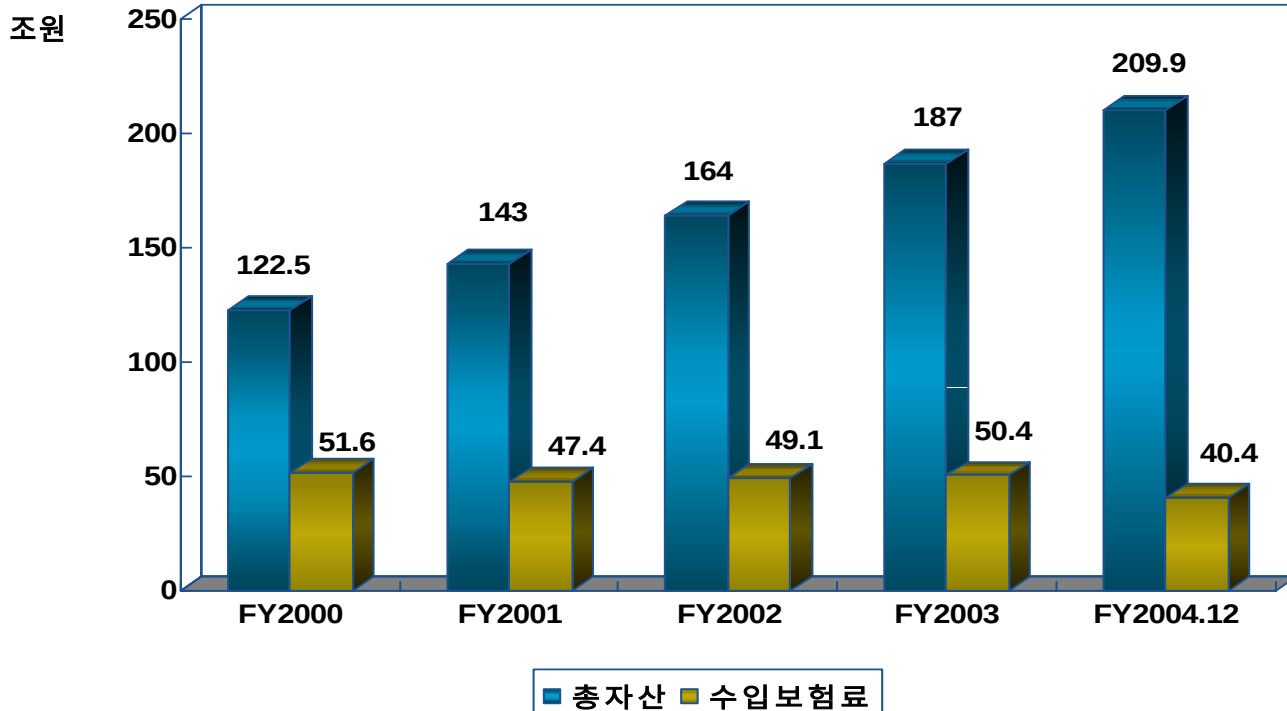
I. 생명보험 주요 지표: 금리



- ✓ 2000년 이후 저금리기조가 지속, 2004년 하반기 이후에는 장기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장단기 금리차 소진 등 금융시장 왜곡 발생
- ✓ 2005년 들어 실세금리가 빠르게 회복됨으로써 초저금리 현상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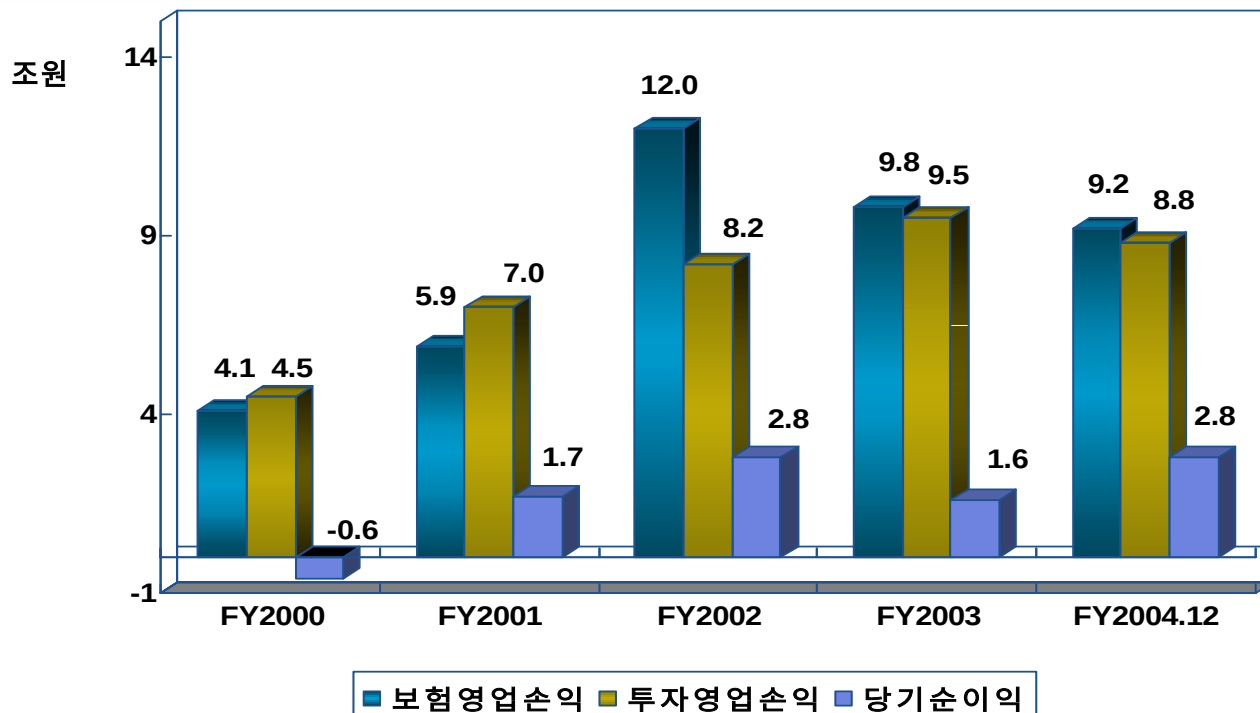
I. 생명보험 주요 지표: 총자산 및 수보



- ✓총자산은 건조한 증가세 지속하여 210조원 기록
- ✓수보는 전년동기대비 5.2% 증가(보장성 56% : 저축성 44%)



I. 생명보험 주요 지표: 수지 및 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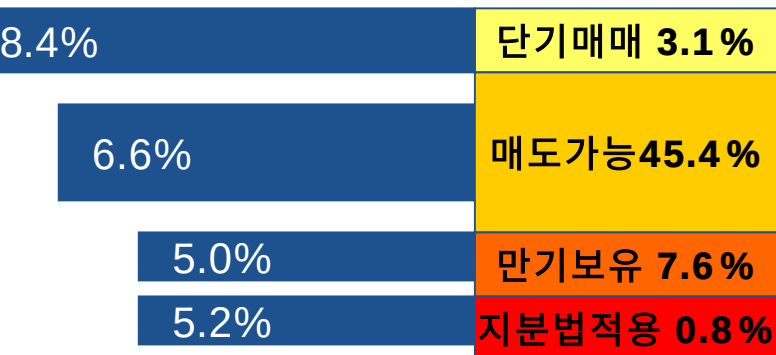


- ✓보험영업이익은 보험료수익의 소폭 증가(3.6%) 및 보험금 감소(3.4%)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9조 2천억원 기록
- ✓투자영업이익은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익, 파생상품관련 이익으로 8조 8천억원을 기록
- ✓계약자배당적립전 잉여금은 2조 8천억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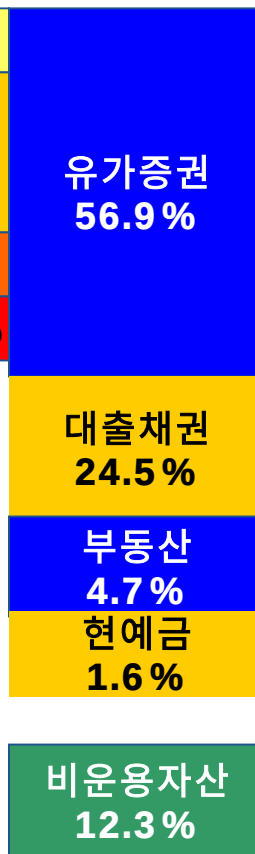
I. 생명보험 주요 지표: 자산운용

유가증권수익률('0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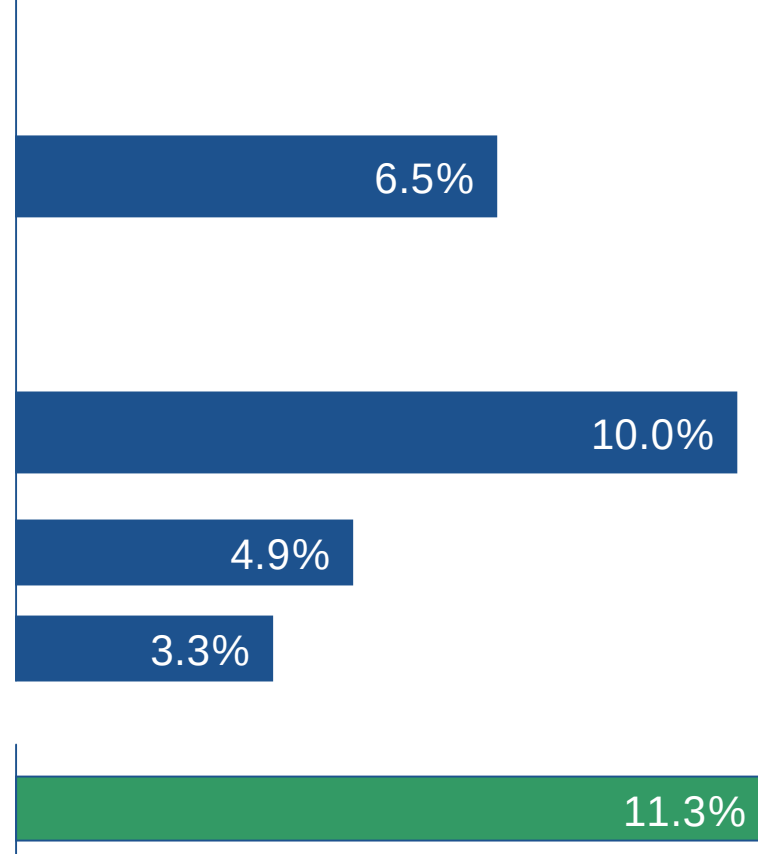


- ✓운용자산 164조원
- 매도가능증권 85조원
- 만기보유증권 14조원
- 단기매매증권 6조원
- ✓비운용자산 23조원
- ✓특별계정자산 16조원

자산구성('0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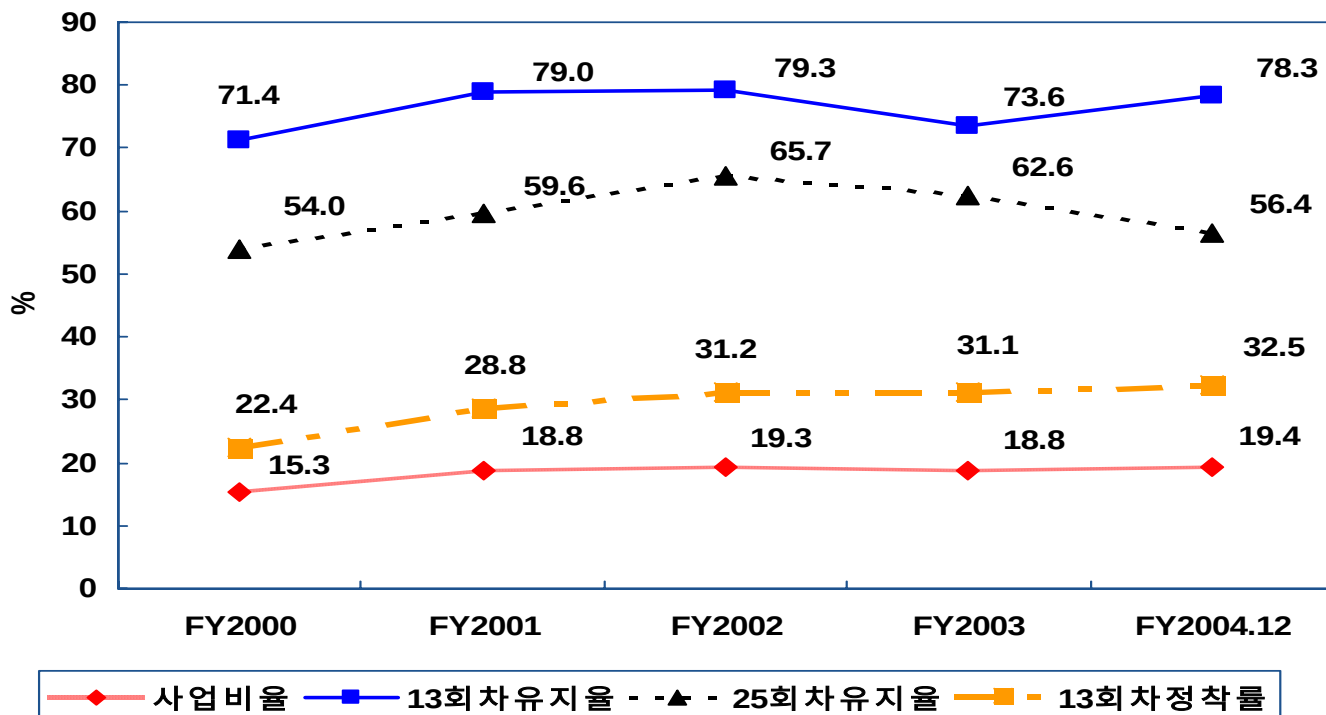
자산별 수익률('04.4~11)



주: 비운용자산은 파생상품관련 자산을 포함



I. 생명보험 주요 지표: 경영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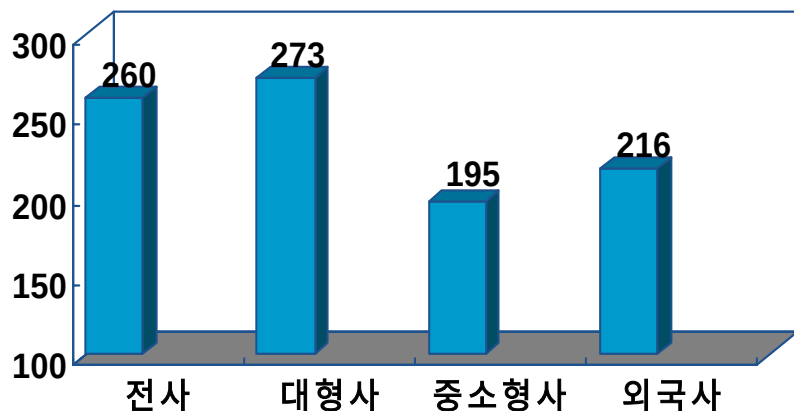


- ✓ 25회차보험계약유지율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해 크게 저하됨
- ✓ 사업비율도 소폭 증가
- ✓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및 설계사정착률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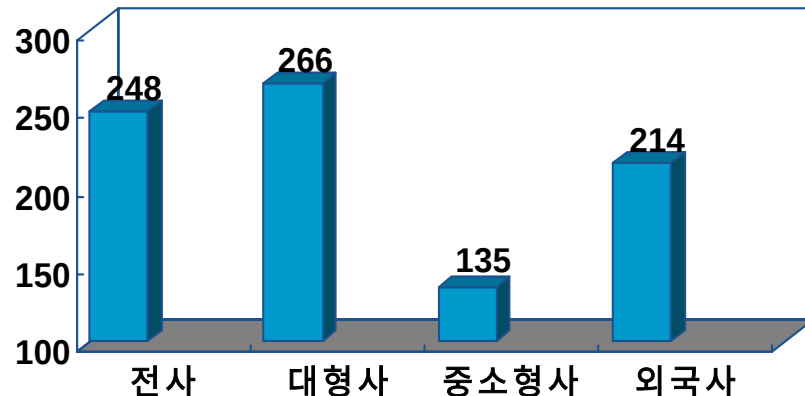


I. 생명보험 주요 지표: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20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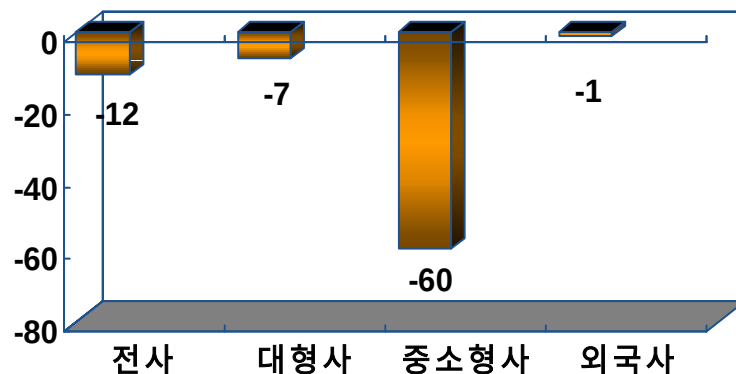


수정지급여력비율(2004.12)



- ✓ 외건상 지급여력비율 양호
- ✓ 후순위차입금,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수정지급여력비율은 12%p 낮음
- ✓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보험료의 70~80%를 출재함으로써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낮아짐
- ✓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은 그룹별(회사별) 편차가 매우 큼

차이(수정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비율)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2. 생보사의 부채구조 및 자산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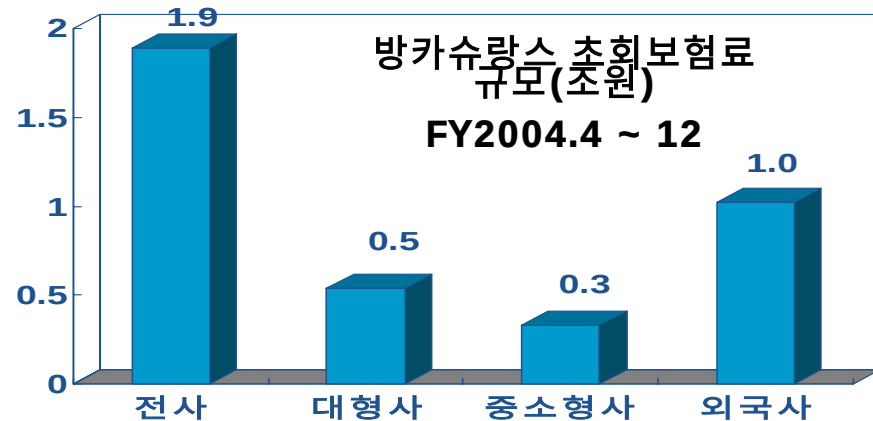
3. 장래 이익원천의 잠식

4. 신계약 성장세 둔화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보험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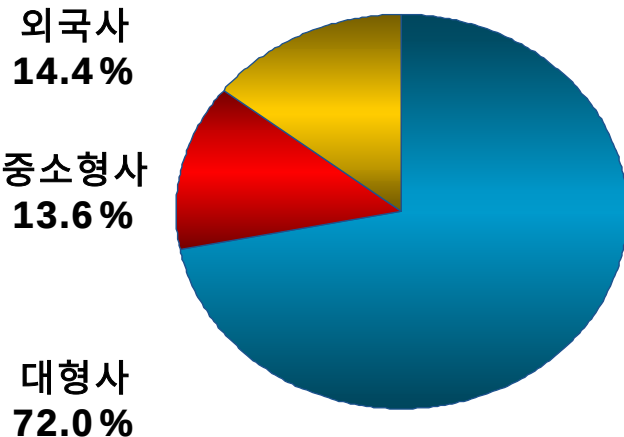
1. 방카슈랑스 확대

- ✓ 초회보험료 1조 9천억원 수준(전체 4조9천억원)
- ✓ 전체 초회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채널비중 38.3%
(일반연금 76.9%, 생사혼합 56.2%)
- ✓ 외국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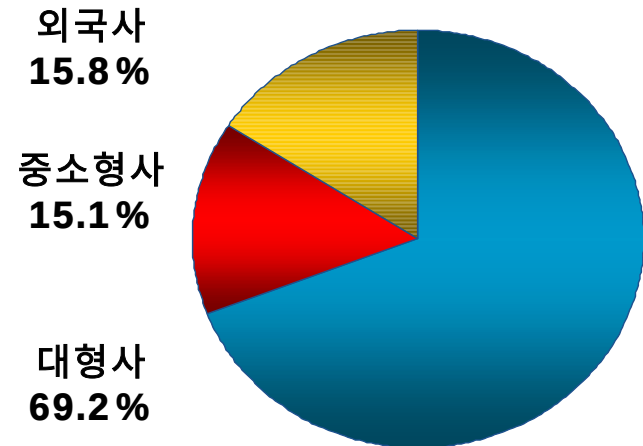


시장점유율 변화

시장점유율(FY2003)



시장점유율(FY20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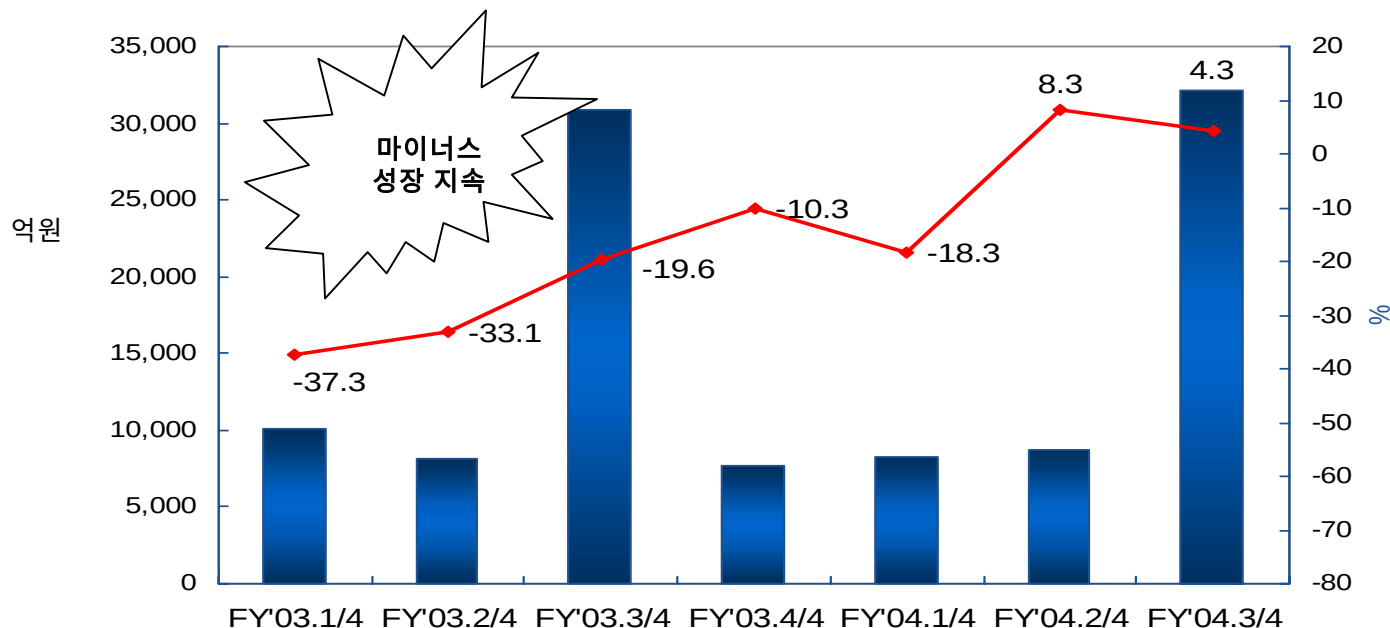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보험환경변화

2. 유사보험의 공격적 시장진입

- ✓ IMF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의 안전금융기관 선호현상으로 인해 유사보험이 크게 성장
- ✓ 유사보험의 공격적 시장진입으로 단체보험 수보가 FY2004 ¼분기까지 감소
- ✓ 향후에도 유사보험의 시장잠식으로 인해 민영 생보사의 영업환경 악화 우려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보험환경변화

3. 각종 제도 변경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 상품별 허용시기 조정(2005년 4월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한 정하여 시행)
- 불평등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 마련, 시행
- 1개 은행의 보험회사 판매제한 비율 인하(49%→25%)

IBNR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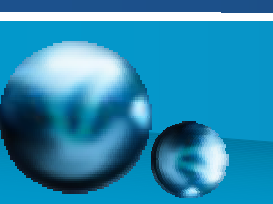
- FY2004 결산시점부터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 단계적상향 조정안(3%→6%→9.8%)에 의할 경우 FY2004에는 1,625 억원 정도를 IBNR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

표준이율 수준 인하

- 2005년 4월부터 표준이율이 0.5%p 인하될 예정(4.75%→4.25%)
- 예정이율 0.5%p 인하시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평균 10%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

업무영역 확대

- 2005년 9월부터 개인 실손보상 건강보험 판매
-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보험제도 실시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보험환경변화

3. 각종 제도 변경

종신보험
표준 신계약비
한도 인하

- 종신보험의 예정신계약비율 특례를 폐지
- 연납보험료 산출시 보험료 납입기간 특례 폐지는 2005.4부터, 보험기간 특례 폐지는 2006.4부터 시행하여 일반보험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보험사가 확보할 수 있는 신계약비 재원이 축소될 전망

지급여력제도
개선

-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을 변경(납입자본금 이내->자기자본의 50% 이내)
- 자기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는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 한도가 감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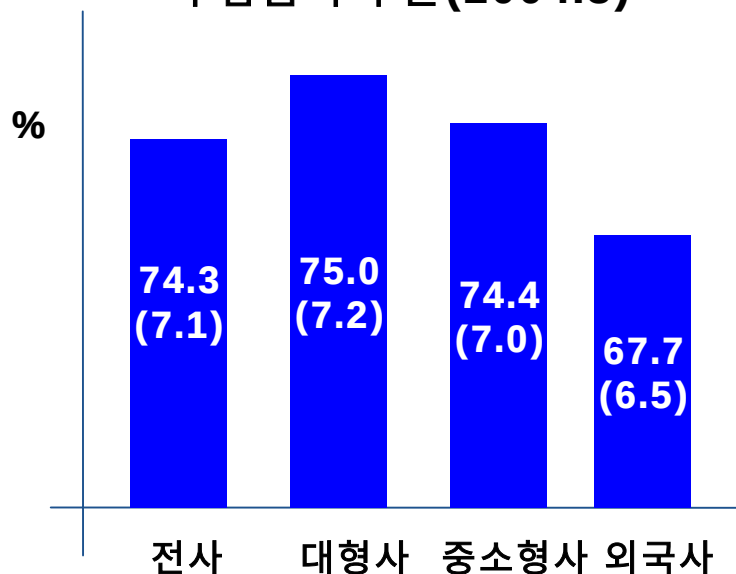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 감독체계
구축

- 2006년 리스크평가제도(RAS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도입 예정
- 2007년 RBC(Risk Based Capital) 도입 예정
- 사후적 감독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 예방적 감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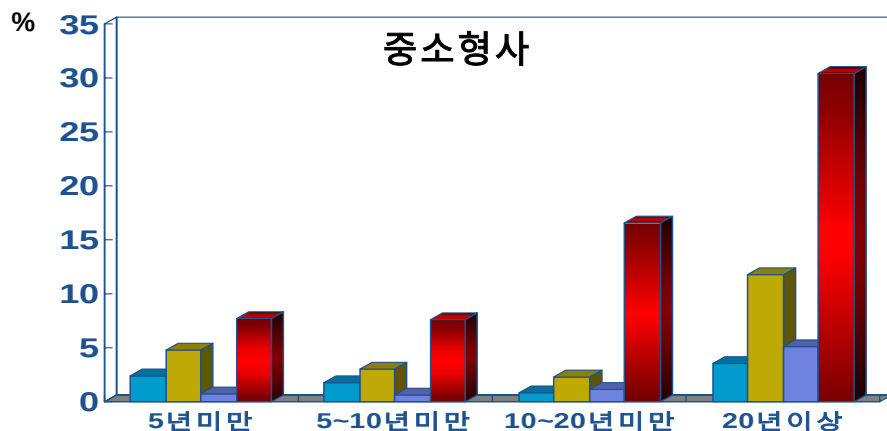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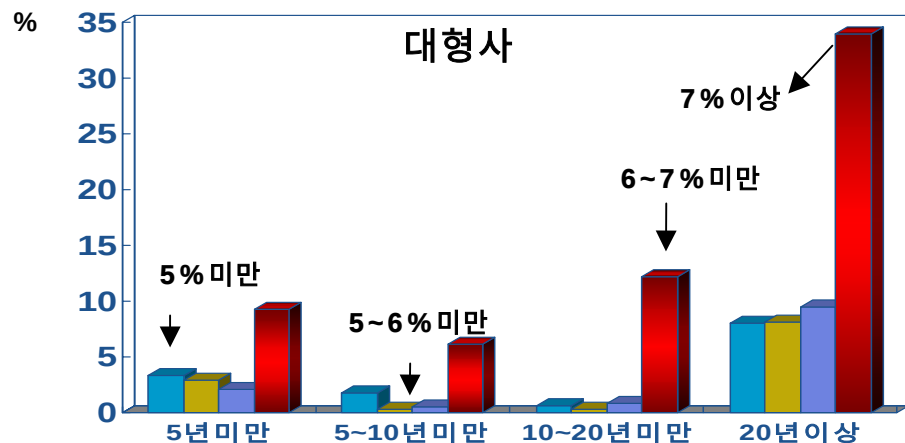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부채구조

금리확정형 책임준비금 비중 및
부담금리 수준(2004.3)



- ✓ 보유계약 부채구조는 회사그룹별로 뚜렷한 차이
- ✓ 국내사는 금리확정형 고금리 계약에 대한 부담이 높음
- ✓ 외국사는 금리확정형 고금리 계약에 대한 부담이 낮음
- ✓ 국내사 중 대형사가 중소형사에 비해 부담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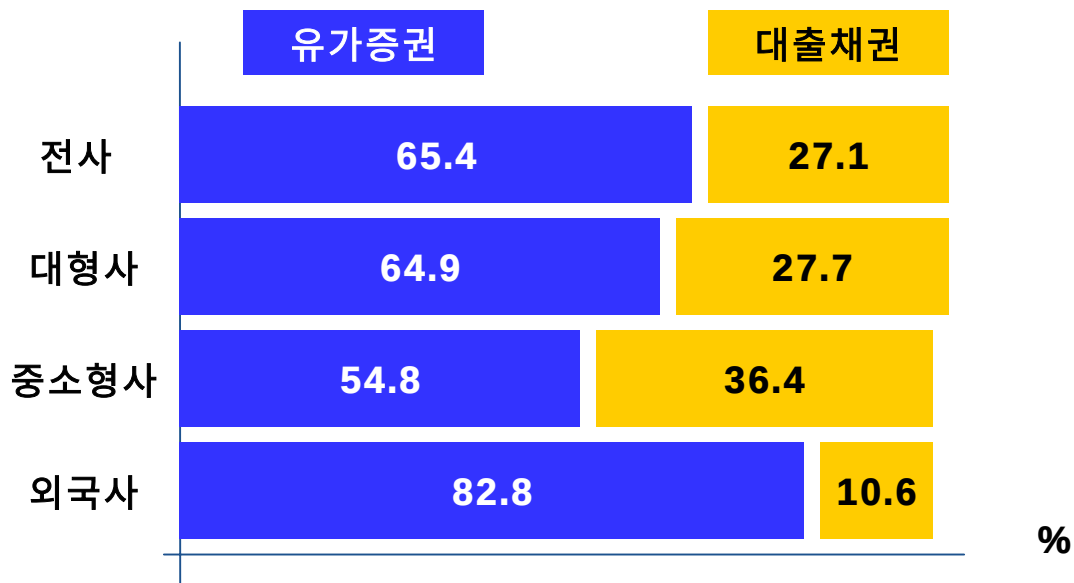
예정이율별 / 잔존기간별 보험료적립금(2004.6)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자산구조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보유 현황(20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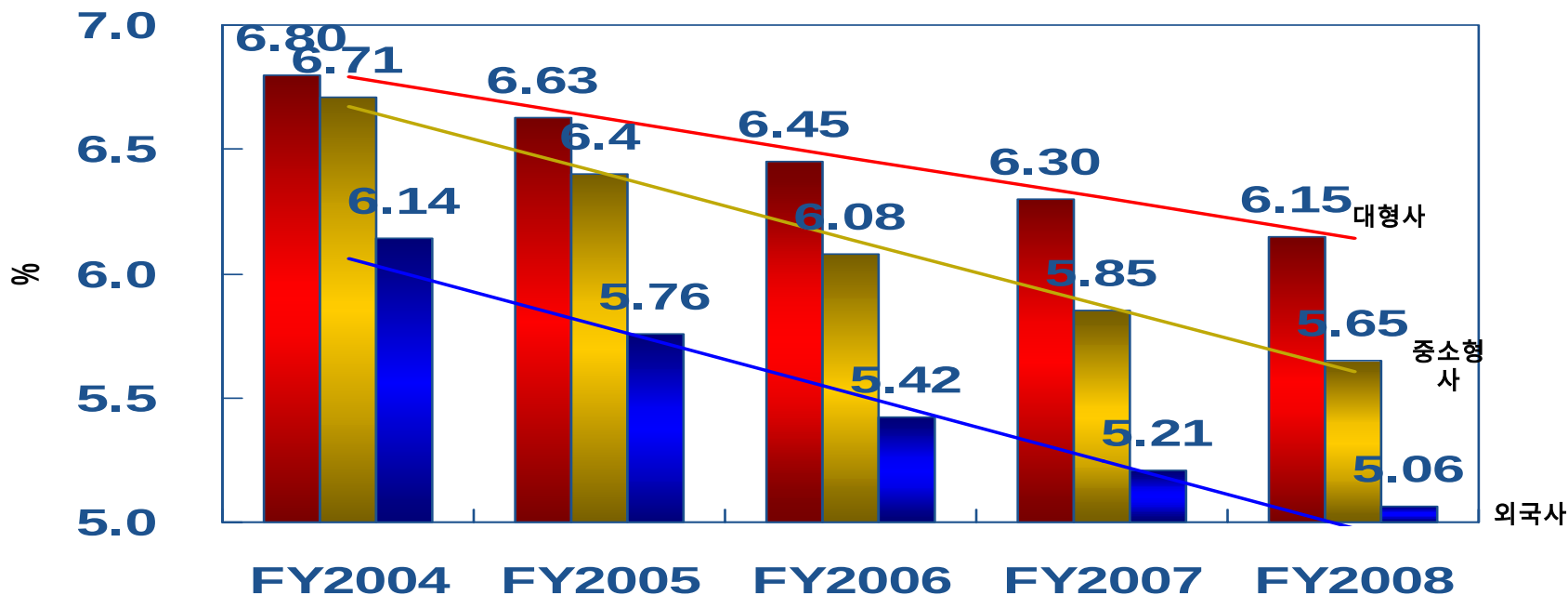


- ✓ 운용자산구조는 과거 대출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국공채 및 특수채 등 안정적인 유가증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움
- ✓ 부담금리가 높은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음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부채&자산

회사 그룹별 장래 책임준비금부담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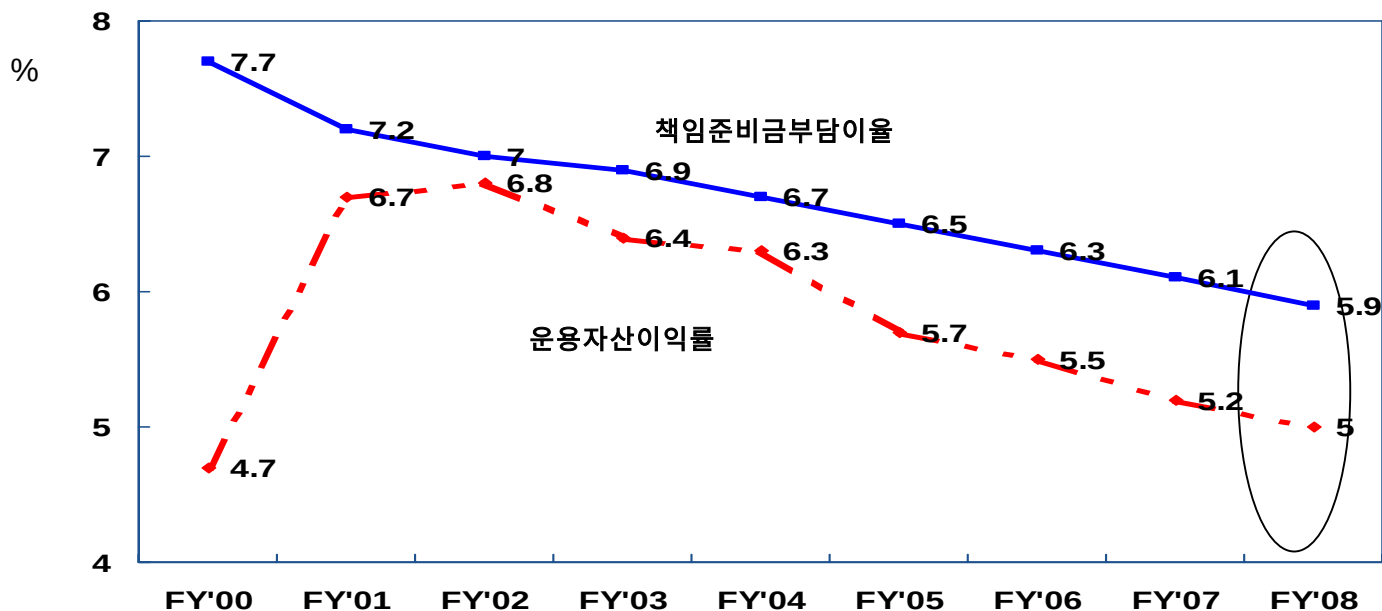


- ✓ 대형사는 금리확정형 보유계약의 부담이 높고, 유지율이 양호한데 기인하여 준비금부담이율의 감소 폭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 ✓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준비금 감소 폭은 FY2004~FY2008 동안 1.07%p 수준으로 예상되어 대형사보다 0.41%p 높음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이자율차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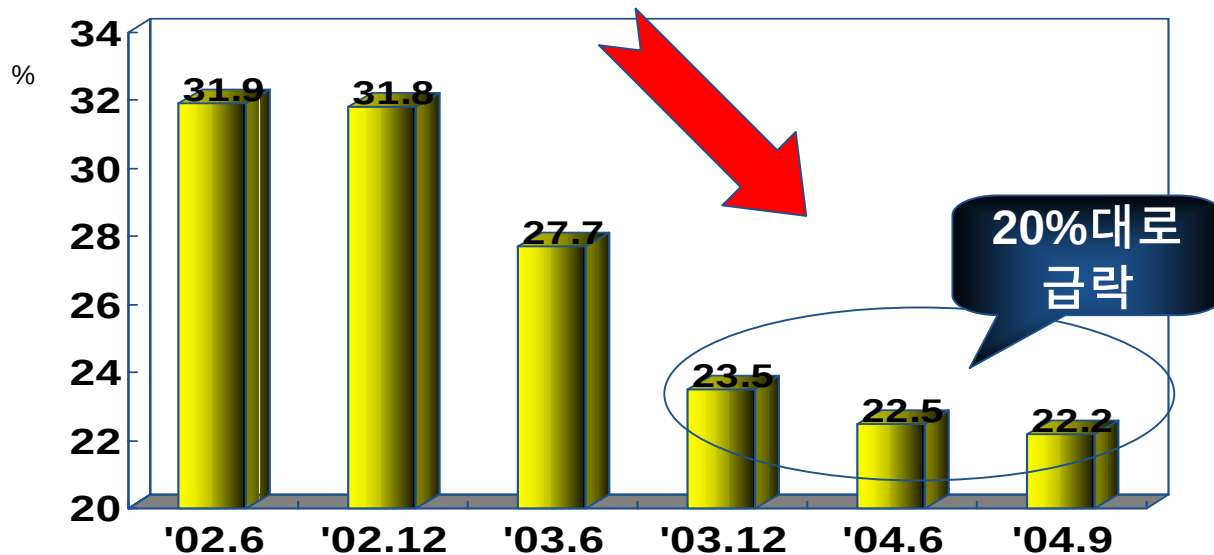
이자역마진 확대



- ✓ 향후 장기계약의 유지율 양호, 신계약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인해 준비금 부담이율 감소 폭은 매우 느리게 나타날 것임
- ✓ 반면, 자산이익률은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으로 5%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저금리기조 지속시 이자율차손실 확대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위험률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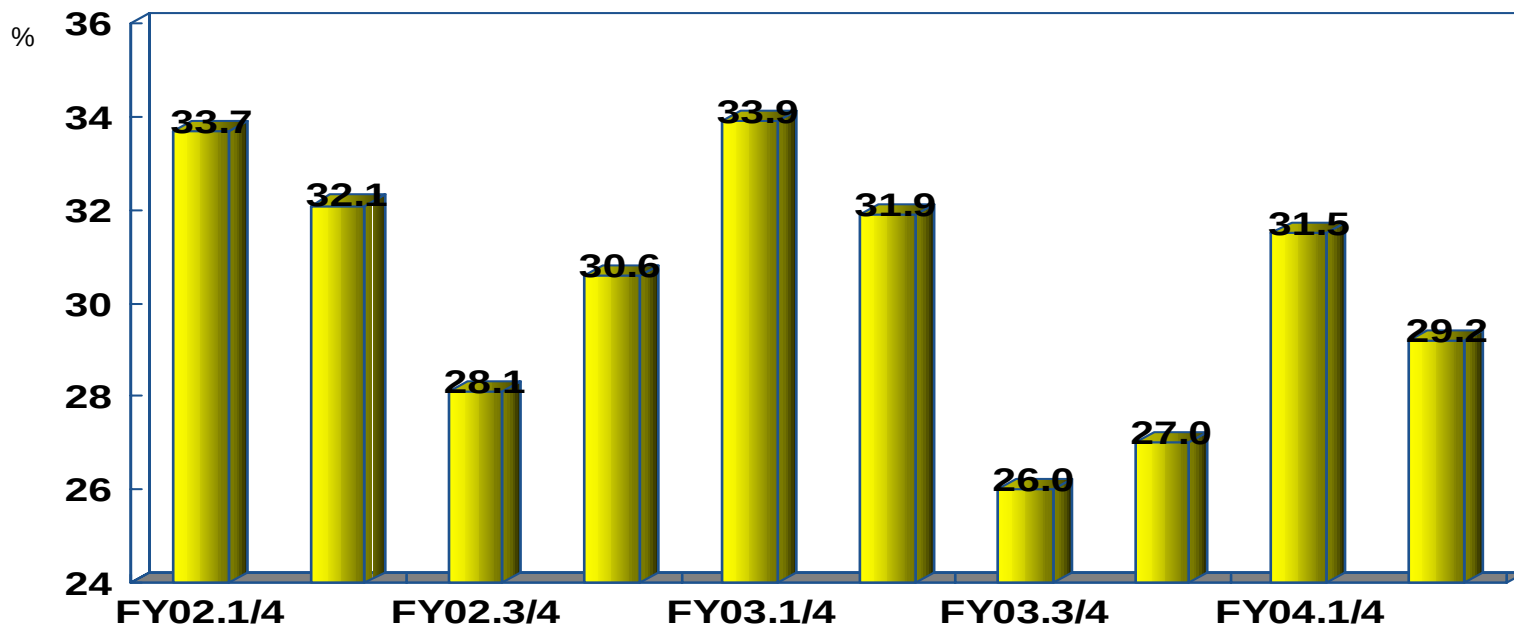
위험률차익률 급감



- ✓ 제4회 경험생명표 적용, 생존담보 비중이 높은 CI보험 및 건강관련 특약 (입원, 상해, 수술) 부가 증가
- ✓ 대형3사의 종신보험, CI보험에 대한 생존특약부가율 80~90% (건수 기준)
- ✓ FY2004 대형3사의 위험률차익률 20% 수준으로 예상
- ✓ IBNR 적립으로 인해 위험률차익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사업비차익

사업비차익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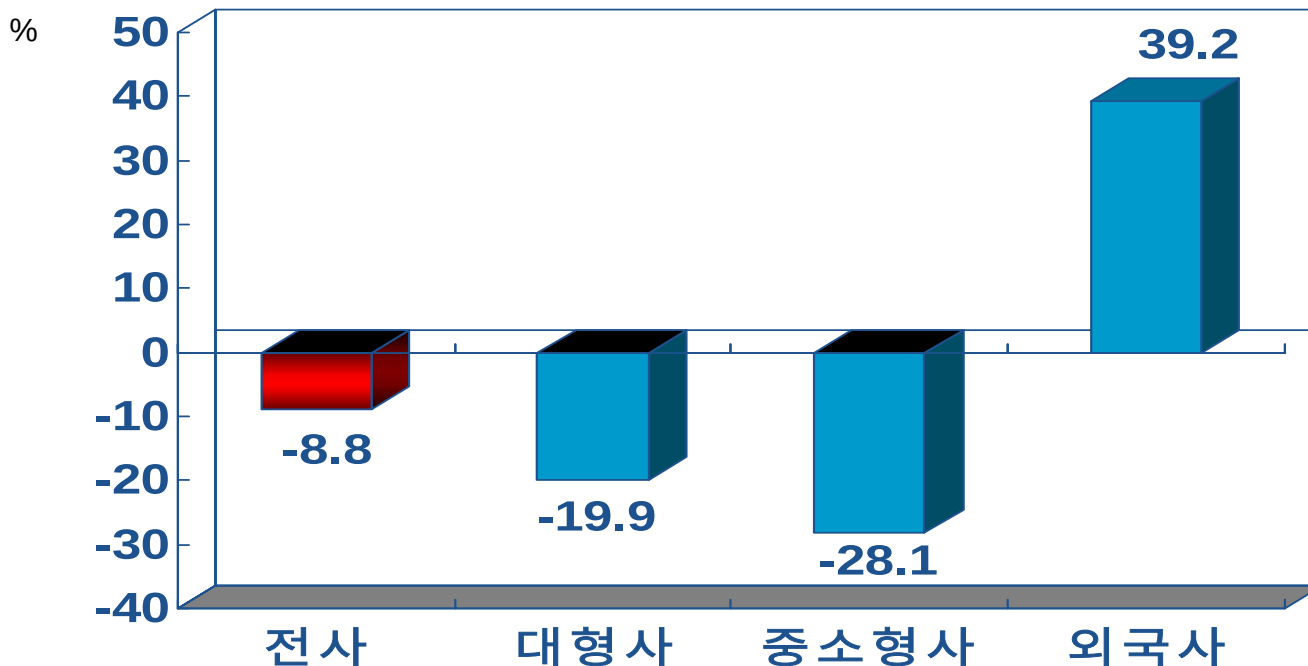


- ✓ 사업비집행률이 높아져 사업비차익률이 감소하는 추세
- ✓ 신계약비 이연방식 변경, 종신보험 표준신계약비 한도 인하, 세금과공과, 협회비를 사업비 항목으로 분류함에 따라 사업비차익 감소 예상



II. 생명보험사의 경영여건: 신계약성장

초회보험료 성장률(FY2004.4~12)



- ✓ 변액상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신 등 일반계정의 감소 규모를 상쇄하지 못해 FY2004.4~12월 초회보험료 규모는 8.8% 감소
- ✓ 향후에는 보험시장의 성장동력 소진, 포화된 시장 (생명보험 세대가입률: 2003년 90% 수준) 등으로 인해 신계약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



III. 장래 손익전망

1. 개요

2. 종합전망

3. 민감도 분석



III. 장래 손익전망: 개요

대상 회사

분석 항목

○ 대형사(3사)

- 대한, 삼성, 교보

○ 중소형사(8사)

- 흥국, 녹십자, 신한, 럭키, 금호, SK, 동부, 동양

○ 외국사(9사)

- ING, 푸르덴셜,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뉴욕,
라이나,
AIG, PCA, 하나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지급여력



III. 장래 손익전망: 개요

분석기간

○ 향후 5년(FY2004 ~ FY2008)

신뢰성
한계

- 회사제공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의존
- 비용요인의 변화로 인해 오차 발생 가능
 - 보험종목별 대표모델의 손익패턴 적용
 - 신규판매상품의 손익패턴, 급격한 판매채널의 변화
-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상이한 결과 발생 가능
 -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



III. 장래 손익전망: 기본가정

기본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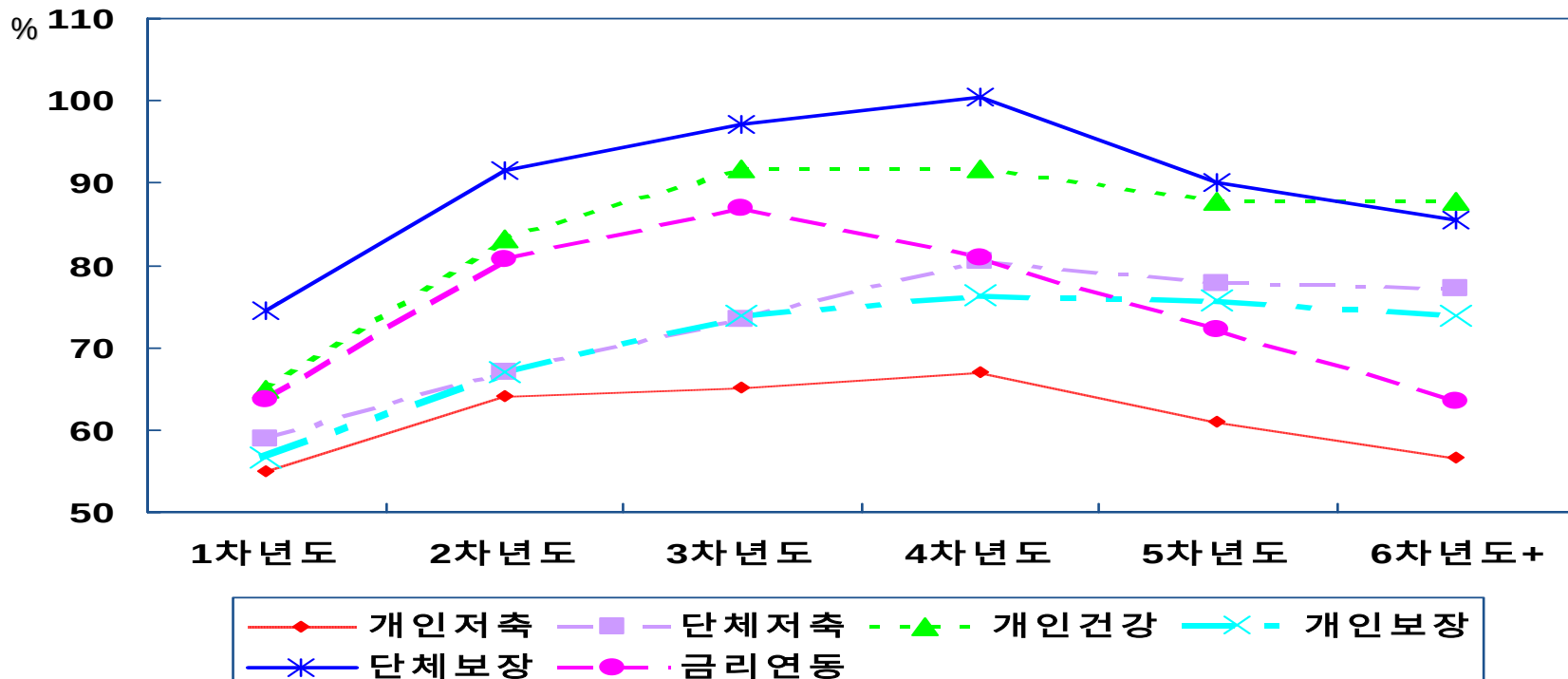
- 회사별로 경험데이터를 사용
- 보험금지급률, 해지율, 사업비율, 자산운용이익률, 신계약물량에 대해 6개 보증으로 구분하여 계리적 가정 설정
- 6개 보증 구분
 - 금리확정형 : 개인저축, 개인건강, 개인보장, 단체저축, 단체보장
 - 금리연동형

III. 장래 손익전망: 기본가정

보험금
지급률

- 최근 급격한 보험금지급률 상승 현상을 감안하여 FY'03 실적 자료를 조정
- 대형사는 보종별/경과년도별 지급률 사용
- 중소형사 및 외국사는 대형사의 경과년도별 지급률 패턴을 반영하여 조정

경과년도별 보험금지급률 가정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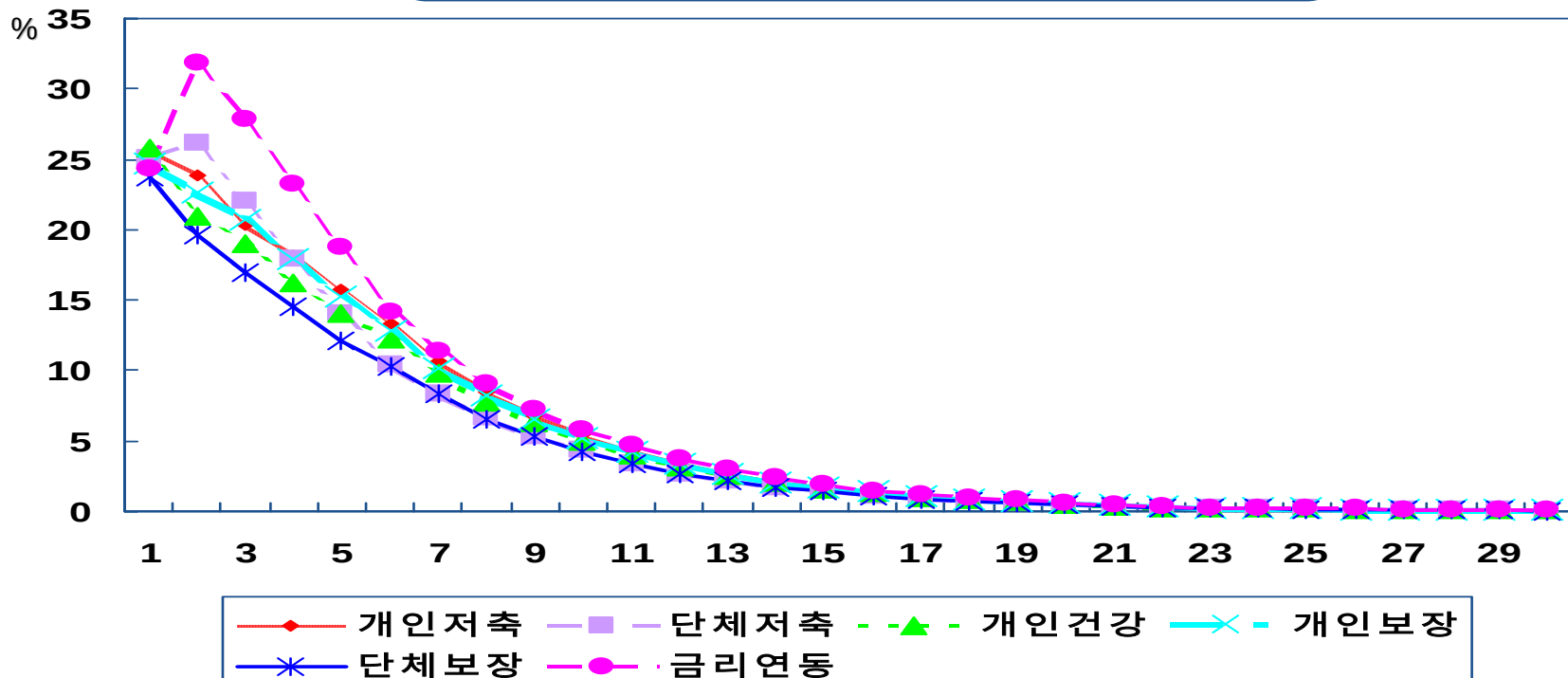


III. 장래 손익전망: 기본가정

해지율

- 회사별로 경과년도별 최근 3년간 유지율 자료를 사용(1차년도~6차년도)
- 7차년도 이후는 전년 대비 매년 20%씩 감소한다고 가정
- 대형사는 자사의 실적을 사용하고, 중소형사 및 외국사는 대형사의 패턴을 반영

경과년도별 해지율 가정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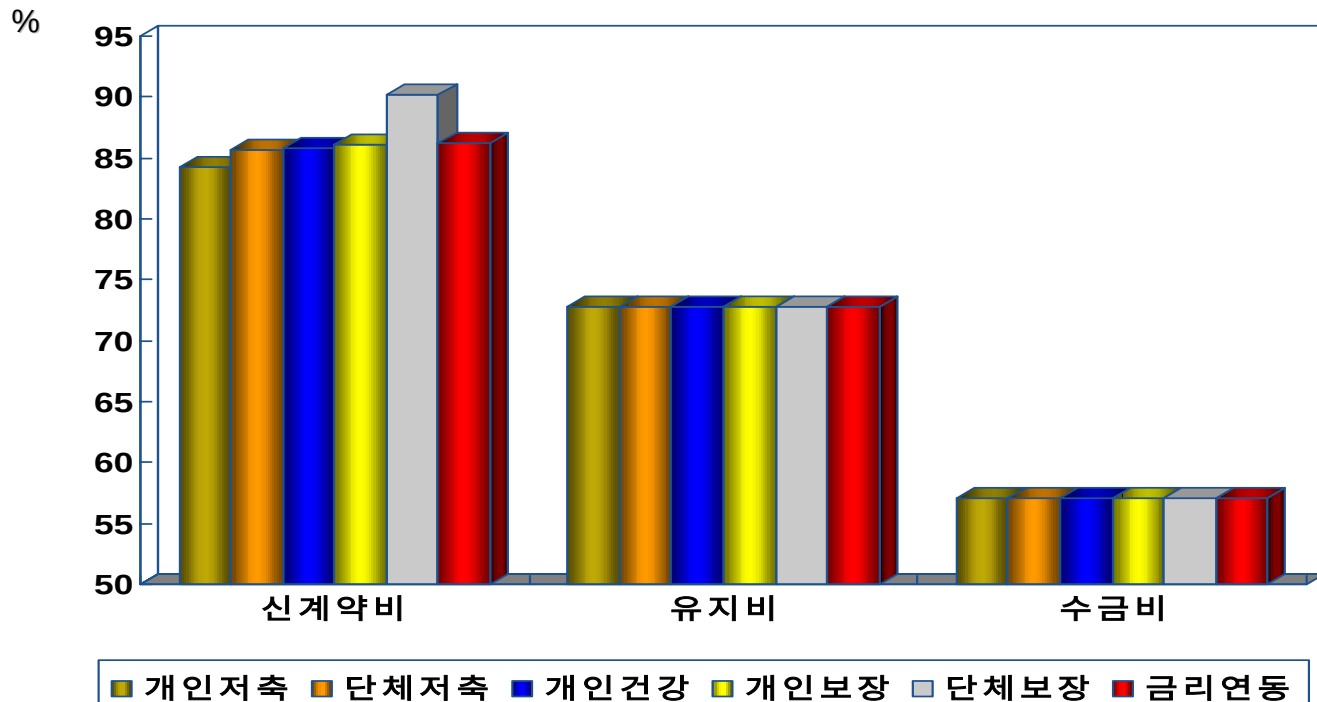


III. 장래 손익전망: 기본가정



- 최근 3년간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
- 신계약비는 보증별로 적용하고, 유지비와 수금비는 전상품에 동일한 수치 적용

경과년도별 사업비 가정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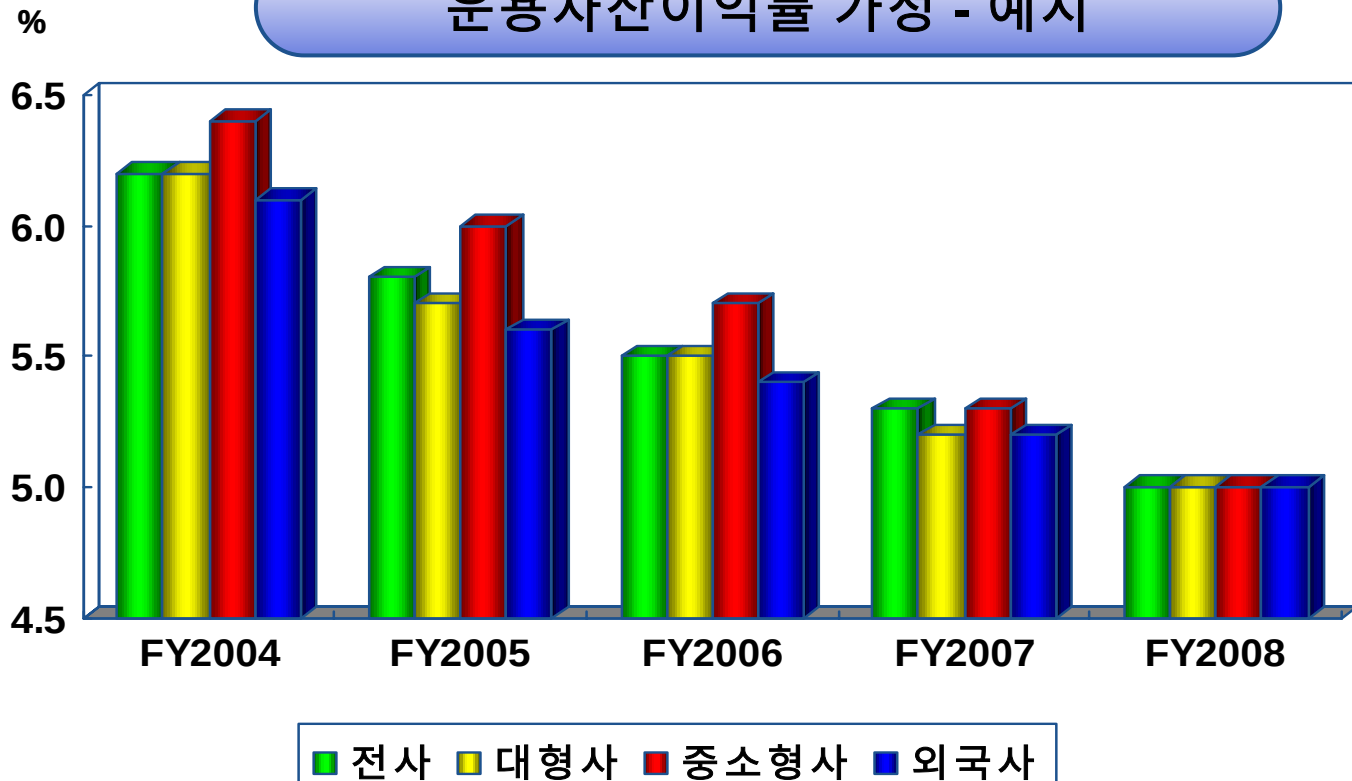


III. 장래 손익전망: 기본가정

자산
이익률

- 보유자산 중 매년 25%가 신규자산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
- FY2004에 대해서는 FY2004.4~11월 실적치를 적용
- 신규자산이익률은 전사, 전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5% 가정

운용자산이익률 가정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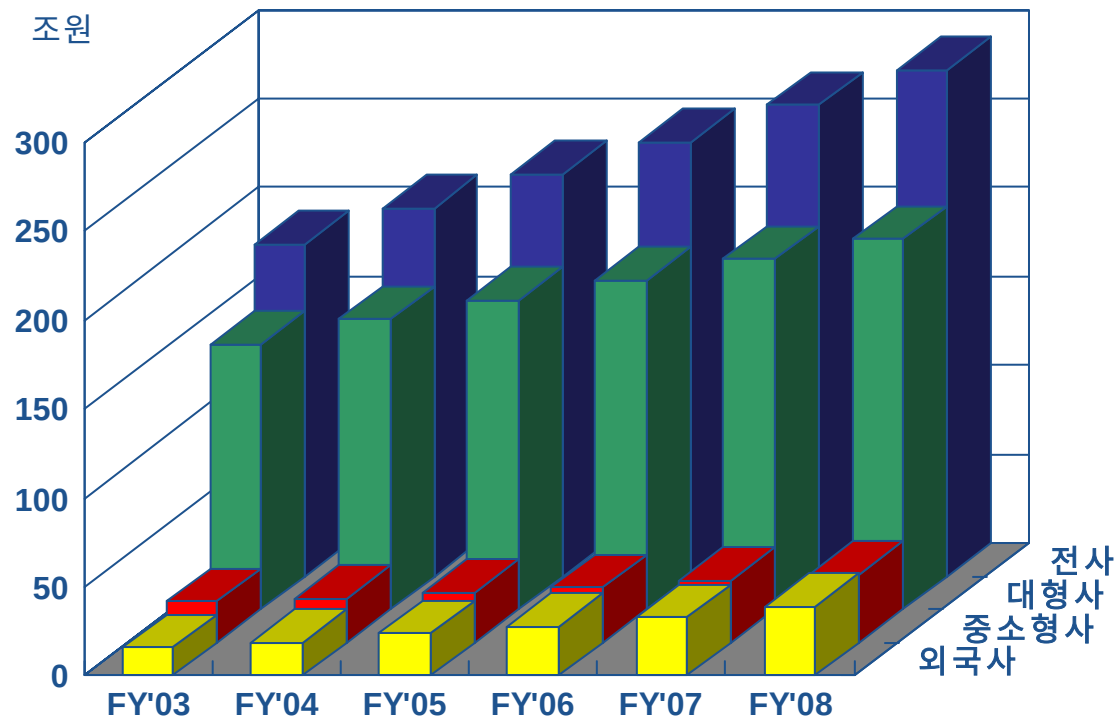
III. 장래 손익전망: 기본가정

신계약
물량

- FY2004는 4~9월 초회보험료 실적을 반영
- FY2005 이후는 방카슈랑스 요인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 ✓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지 않은 회사
 - 향후에도 FY2004와 동일한 수준 적용
 - ✓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회사
 - FY2005에 대해서는 FY2004와 동일 수준
 - FY2006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III. 장래 손익전망: 종합전망

총자산 변동 추이



□ 총자산

- 2004.3월 187조원

약 20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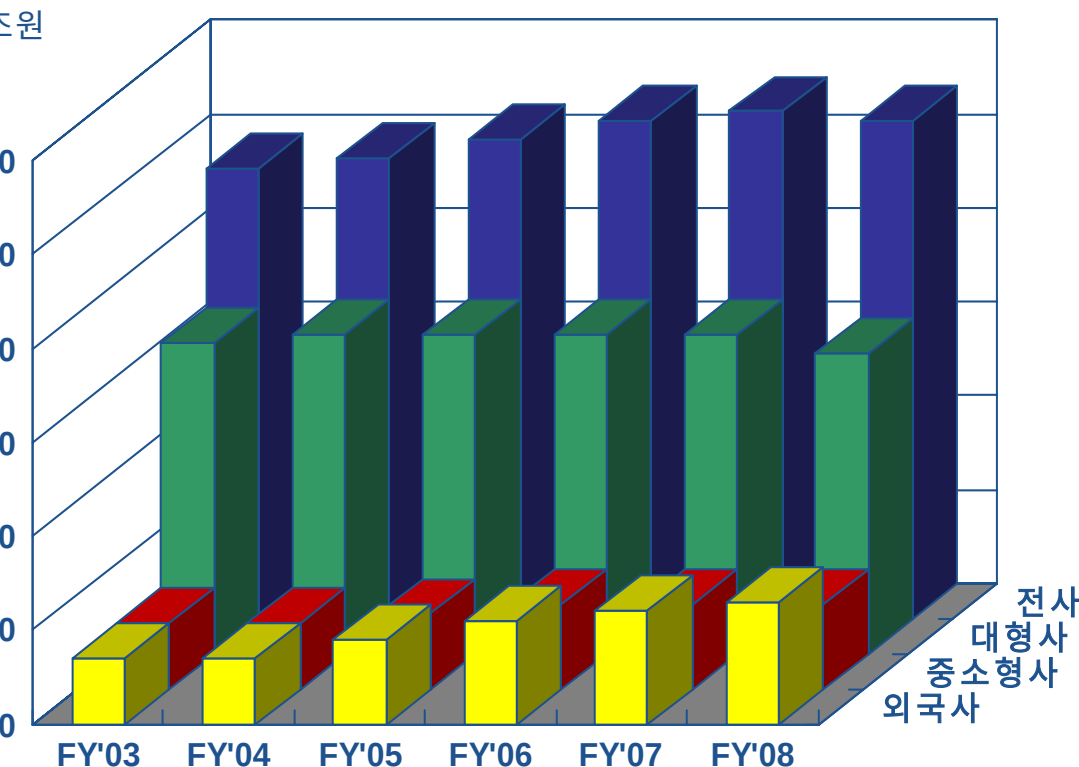
- 2005.3월 207조원

매년
약 18조원 증가

- 2009.3월 284조원

III. 장래 손익전망: 종합전망

수입보험료 변동 추이



□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 신계약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지율 개선으로 인해 계속 보험료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FY'04 48조 5천억원

✓ FY'08 53조 5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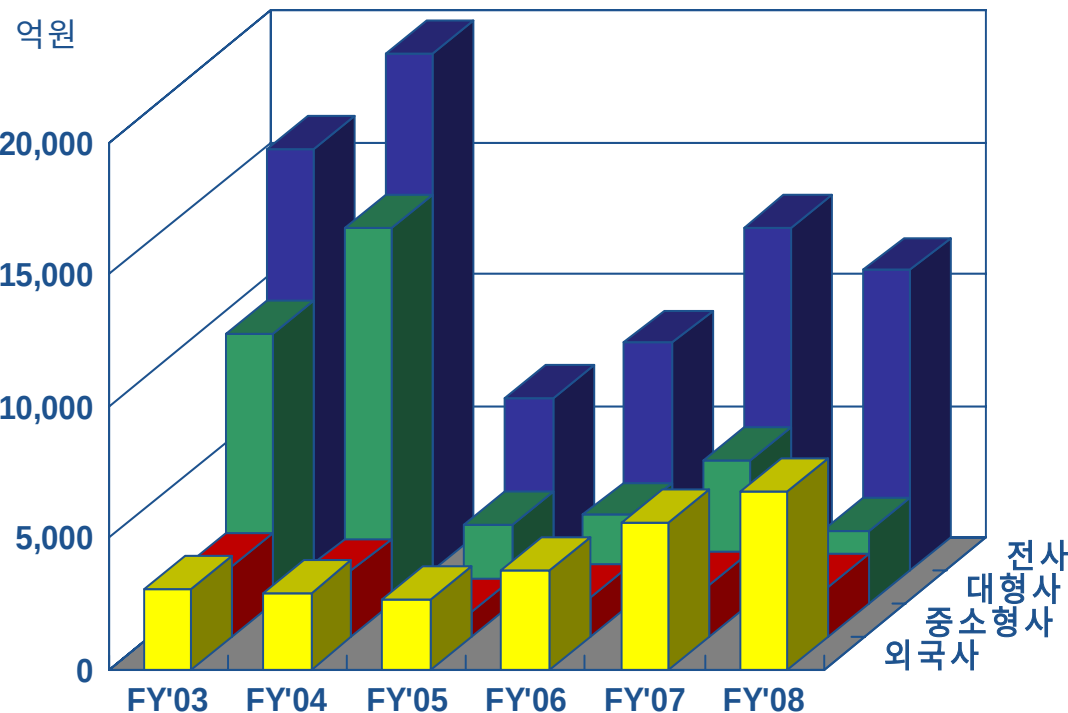
□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 FY'04 5조 5천억원

✓ FY'08 6조 2천억원

III. 장래 손익전망: 종합전망

당기손익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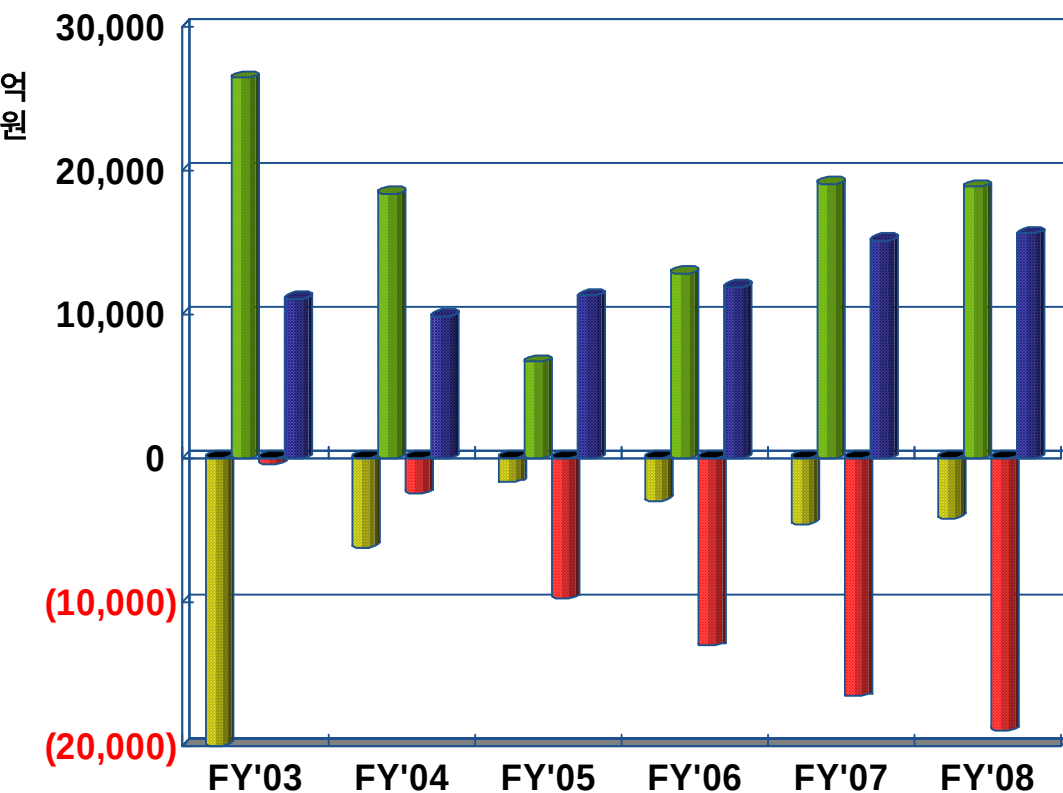


□ 당기손익

- FY'04 1조 9천억원
- FY'05~FY'06
자산운용이익률 하락
실제 신계약비 이연
위험률차익 규모 담보
➡ 6~8천억원대로 감소
- FY'07 이후
1조원대 회복

III. 장래 손익전망: 종합전망

이원별 손익 변동 추이



위험률차손익

FY'04 9,851억원

이후 1조1천원~1조5천억원

사업비차손익

FY'04 1조8천억원

FY'05 6,679억원으로 급락

FY'07 1조9천억원까지 회복

이자율차손익

FY'04 -2,39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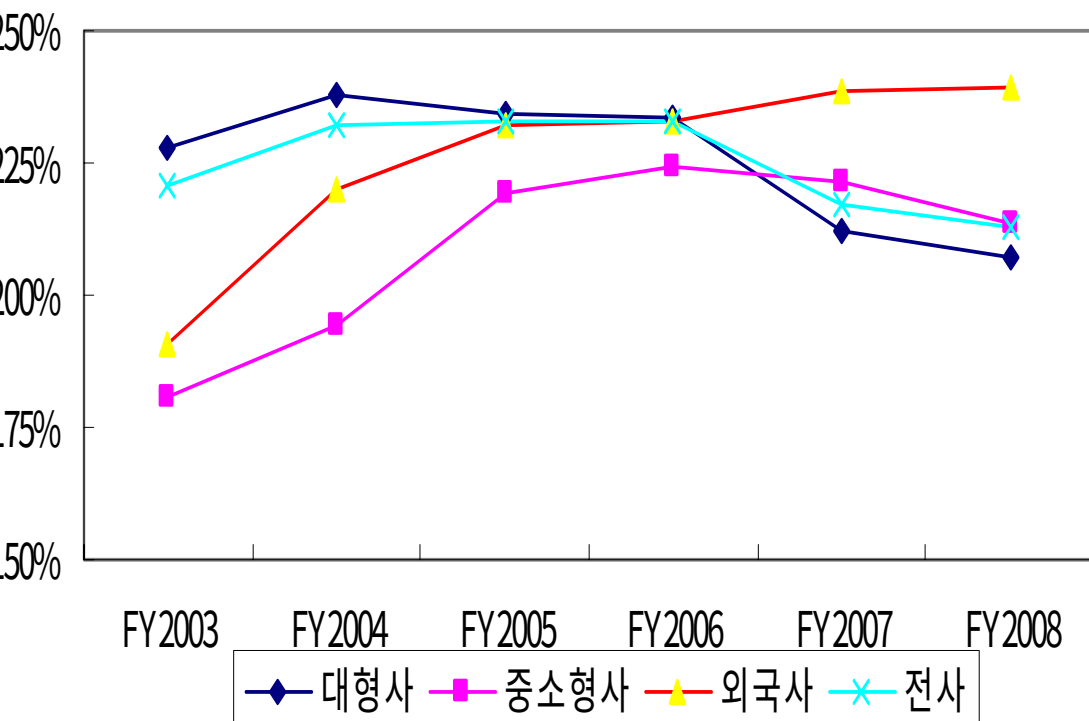
FY'05 -9,637억원

FY'08 -1조9천억원으로 확대

■ 기타손익 ■ 사업비차손익 ■ 이자율차손익 ■ 위험률차손익

III. 장래 손익전망: 종합전망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



FY'04 이후 전사평균
200% 이상 유지 예상

대형사

220~240%

중소형사

190~235%

외국사

205~220%



III. 장래 손익전망: 종합전망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 없고, 후순위채 제외시 지급여력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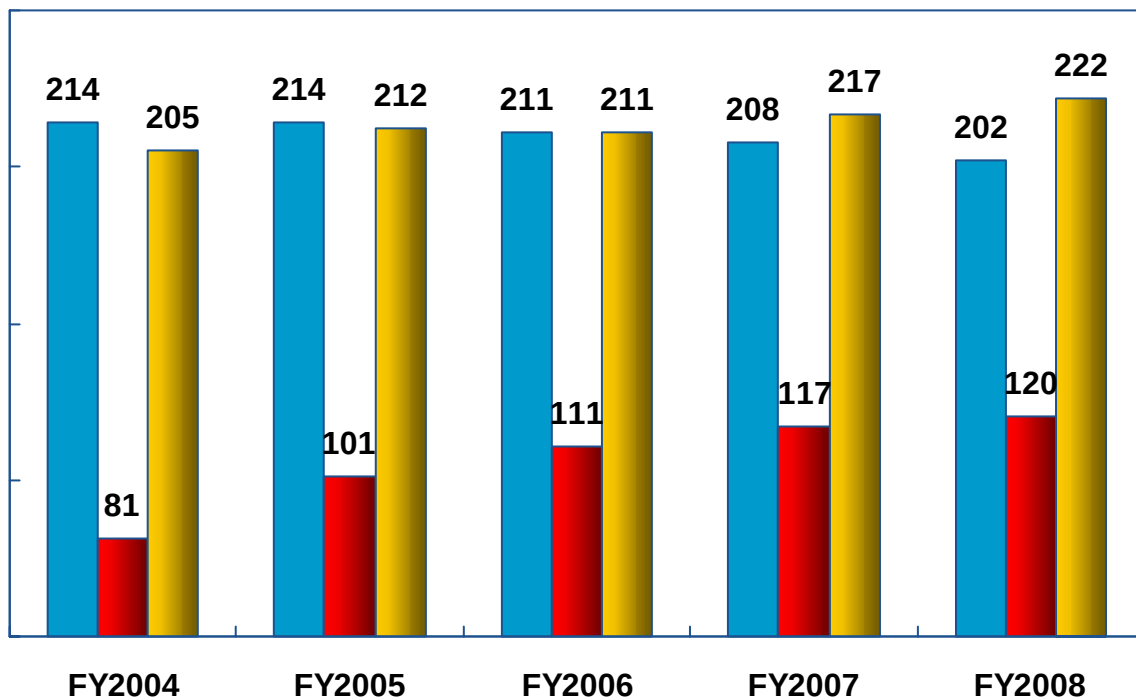
50

00

50

0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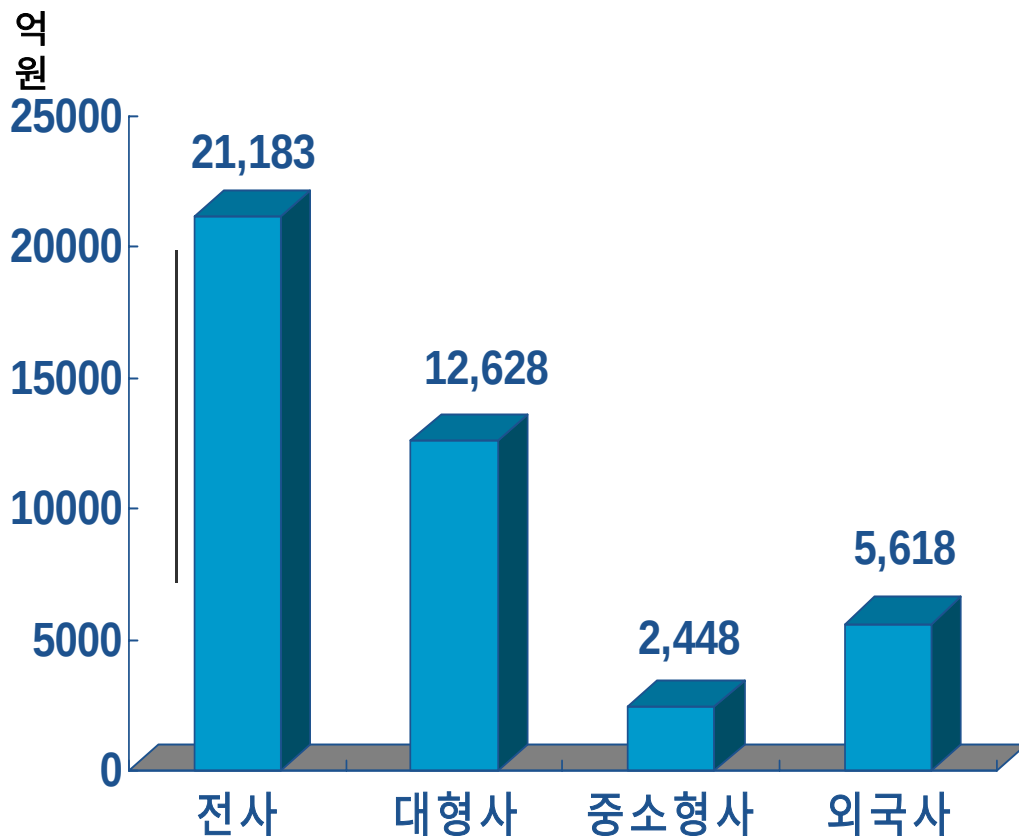
■ 대형사 ■ 중소형사 ■ 외국사

□ 지급여력비율
31~35%p 하락

- 대형사 20~24%p 하락
- 중소형사 110~120%p 하락
- 외국사 변화없음

III. 장래 손익전망: 종합전망

현행 지급여력비율 수준(2004.12)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당기이익 규모



✓ 현행 지급여력비율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 1천억원 수준의 당기이익 필요

- ✓ 대형사 1조 3천억원
- ✓ 중소형사 2천 4백억원
- ✓ 외국사 5천 6백억원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Factor별 가정

투자수익률



0.5%p 하락

사업비율



5% 상승

보험금지급률



5% 상승

신계약물량



3% 하락

시나리오 1

□ 신계약물량

- 1차년도는 기본가정과 동일
- 2차년도 이후는 3% 감소

□ 기타가정

- 사업비율 및 보험금지급률 5% 증가
- 투자수익률 0.5%p 하락

시나리오 2

□ 신계약물량

- 1차년도는 기본가정과 동일
- 2차년도 이후는 3%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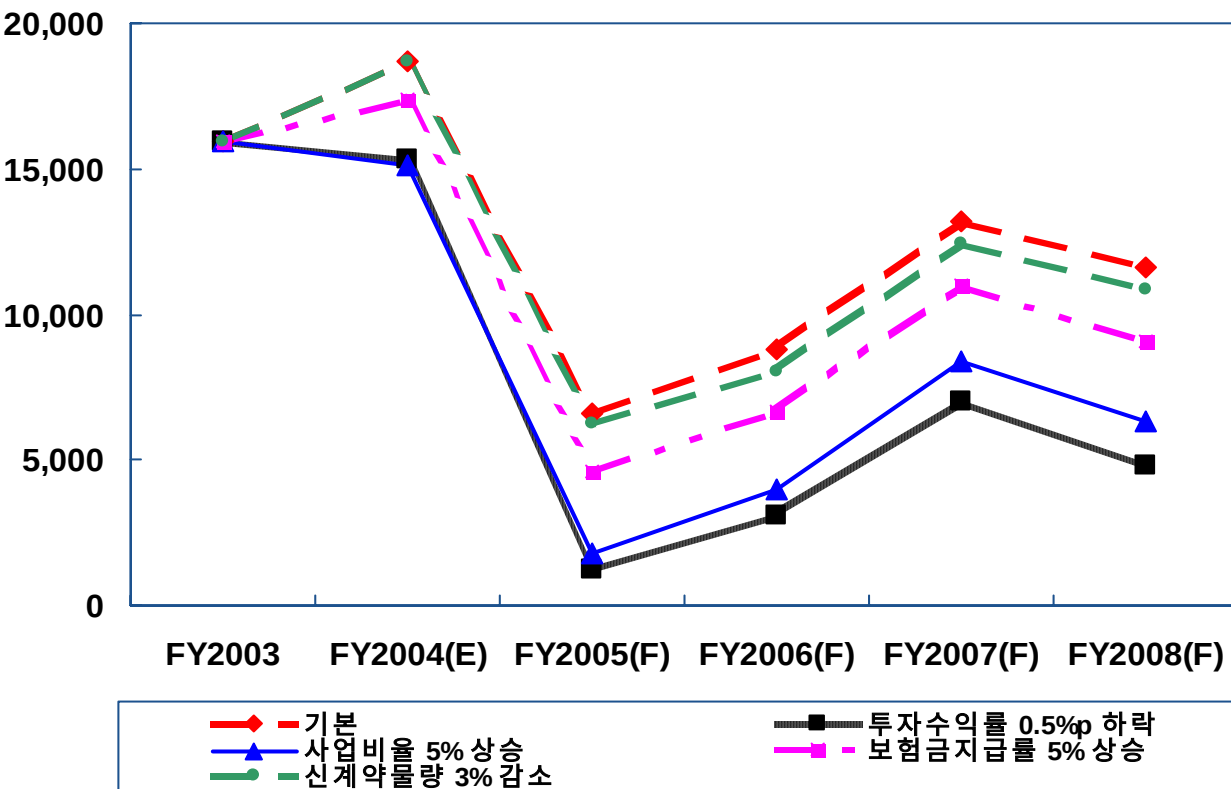
□ 기타가정

- 사업비율 및 보험금지급률 5% 감소
- 투자수익률 0.5%p 상승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민감도에 따른 전사 당기 손익 변화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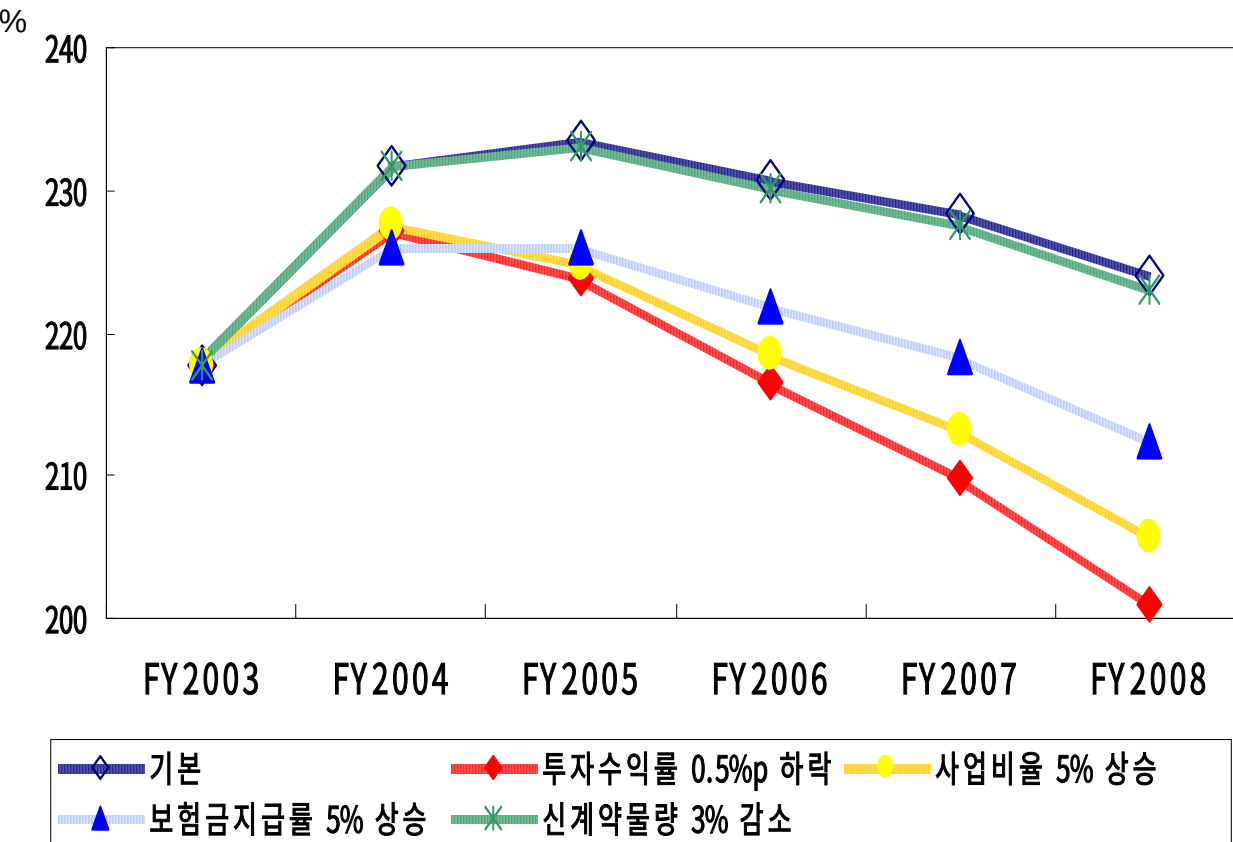
□ 당기손익변화는

- 투자수익률
- 사업비율
- 보험금지급률
- 신계약물량

순으로 민감하게
반응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민감도에 따른 전사 지급여력 비율 변화



□ 지급여력비율
변화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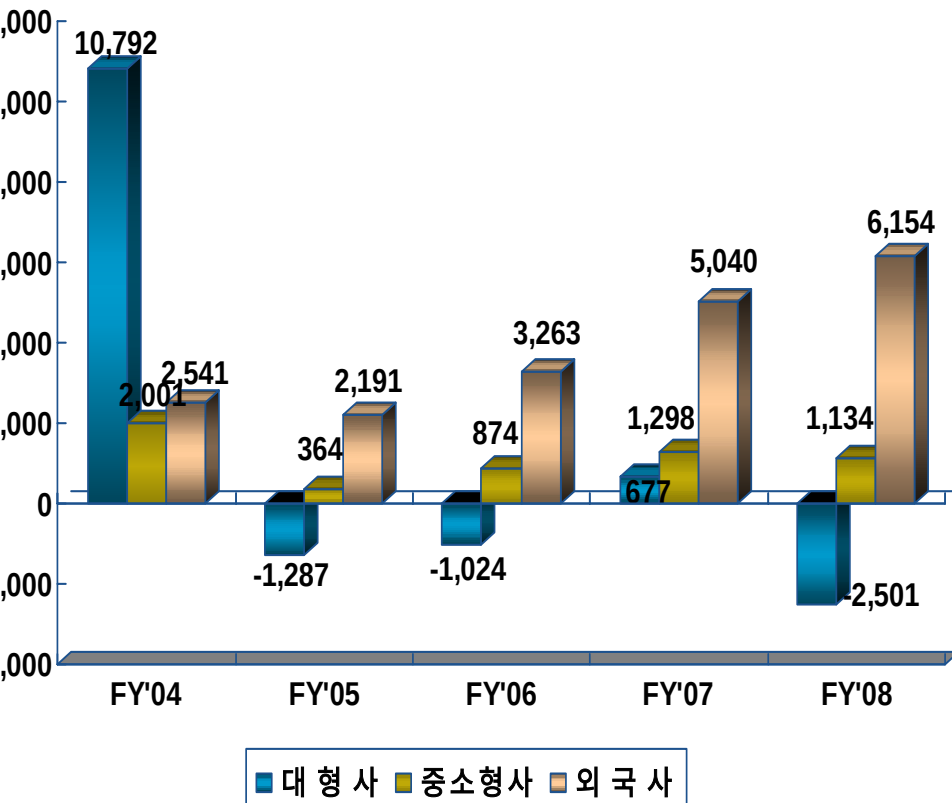
- 투자수익률
- 사업비율
- 보험금지급률
- 신계약물량

순으로 민감하게
반응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투자수익률 0.5%p 하락-그룹별 당기손익

억원



그룹별 당기손익 감소 폭(억원)

	FY'04	FY'05	FY'06	FY'07	FY'08
대형사	-2,689	-4,321	-4,480	-4,901	-5,457
중소형사	-352	-561	-629	-661	-712
외국사	-333	-470	-549	-600	-663
전사	-3,375	-5,353	-5,657	-6,163	-6,832

지급여력비율 및 감소폭(%,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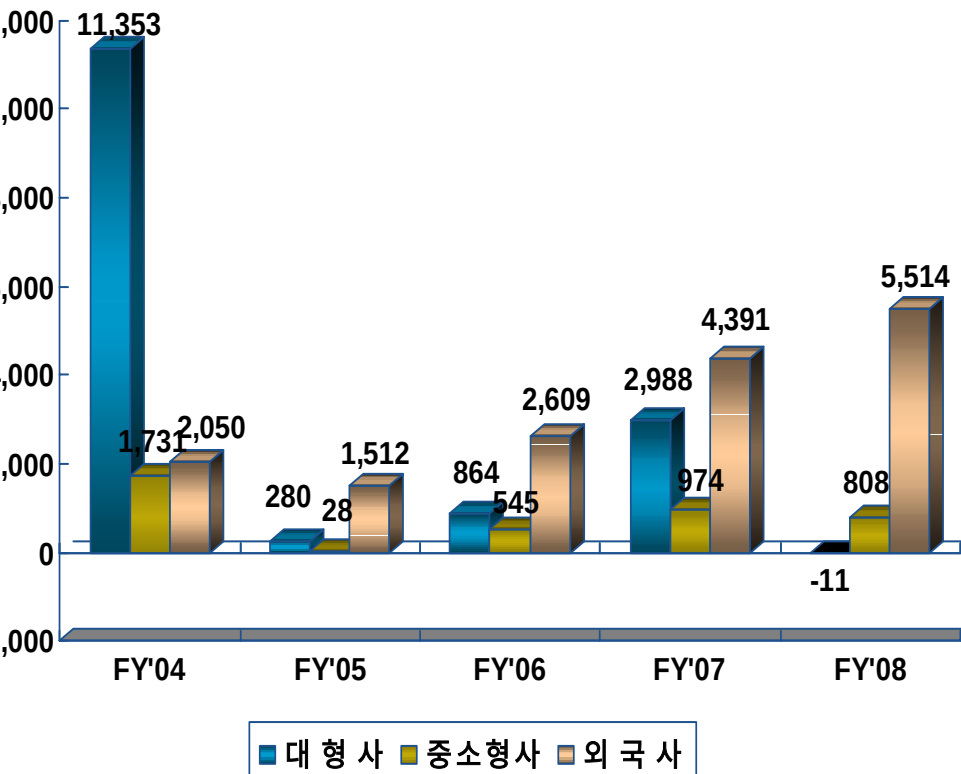
	FY'04	FY'05	FY'06	FY'07	FY'08
전사	227 (-4)	224 (-9)	217 (-13)	211 (-17)	203 (-21)

주: 기본대비 감소 폭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사업비율 5% 상승-그룹별 당기손익

억원



그룹별 당기손익 감소 폭(억원)

	FY'04	FY'05	FY'06	FY'07	FY'08
대형사	-2,128	-2,754	-2,592	-2,591	-2,967
중소형사	-623	-897	-957	-985	-1,038
외국사	-824	-1,149	-1,202	-1,248	-1,303
전사	-3,575	-4,800	-4,751	-4,825	-5,308

지급여력비율 및 감소폭(%,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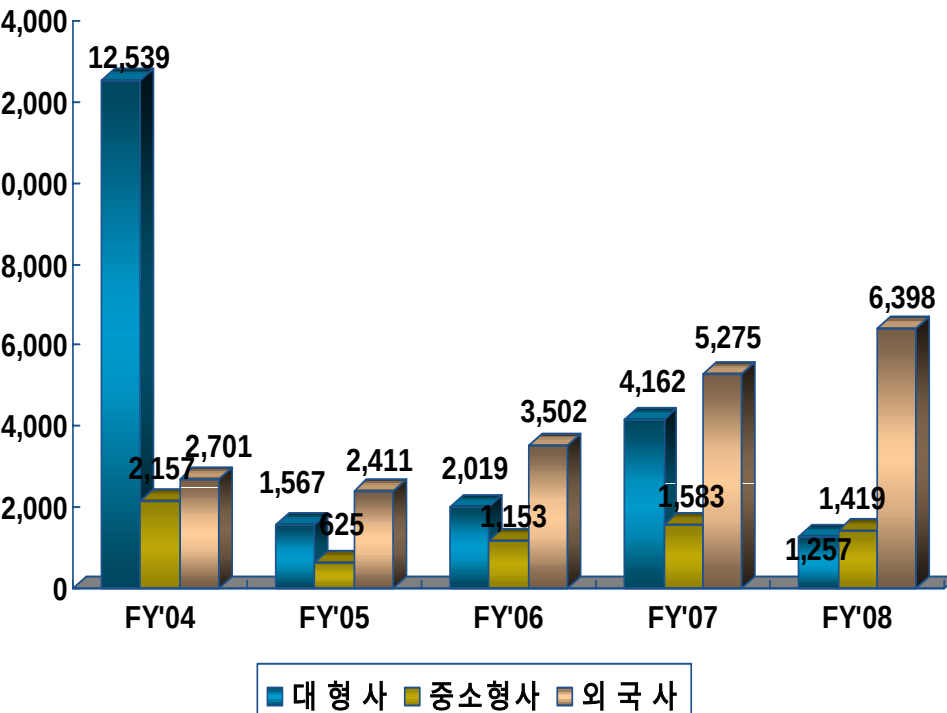
	FY'04	FY'05	FY'06	FY'07	FY'08
전사	227 (-4)	224 (-8)	218 (-12)	213 (-15)	206 (-18)

주: 기본대비 감소 폭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보험금지급률 5% 상승-그룹별 당기손익

억원



그룹별 당기손익 감소 폭(억원)

	FY'04	FY'05	FY'06	FY'07	FY'08
대형사	-942	-1,467	-1,437	-1,417	-1,699
중소형사	-196	-300	-350	-377	-427
외국사	-174	-248	-309	-365	-419
전사	-1,311	-2,017	-2,096	-2,159	-2,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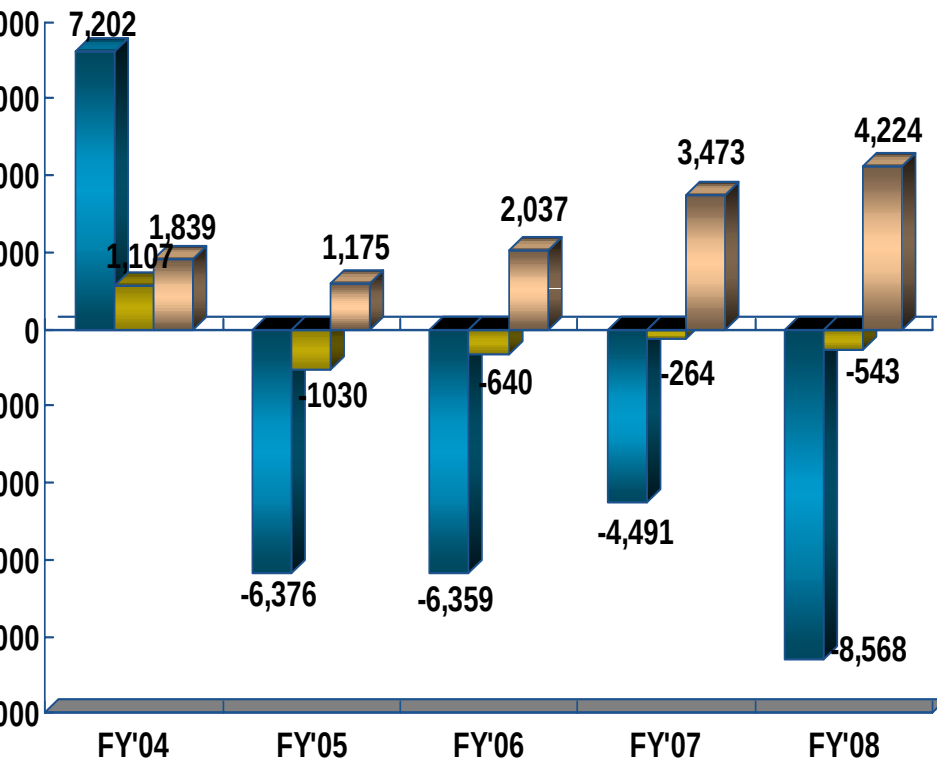
지급여력비율 및 감소폭(%, %p)

	FY'04	FY'05	FY'06	FY'07	FY'08
전사	226 (-5)	226 (-7)	222 (-9)	218 (-10)	213 (-11)

주: 기본대비 감소 폭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1- 당기손익



■ 대형사 ■ 중소기업사 ■ 외국사



- ✓ 투자수익률 0.5%p 하락
- ✓ 사업비율/보험금지급률 5% 상승
- ✓ 2차년도 이후 신계약물량 3% 감소

그룹별 당기손익 감소 폭(억원)

	FY'04	FY'05	FY'06	FY'07	FY'08
대형사	-6,278	-9,411	-9,815	-10,070	-11,523
중소형사	-1,246	-1,955	-2,143	-2,223	-2,389
외국사	-1,035	-1,486	-1,774	-2,167	-2,593
전사	-8,878	-13,347	-14,176	-14,679	-16,495

지급여력비율 및 감소폭(%, %p)

	FY'04	FY'05	FY'06	FY'07	FY'08
전사	217 (-13)	207 (-25)	195 (-36)	183 (-45)	170 (-54)

주: 기본대비 감소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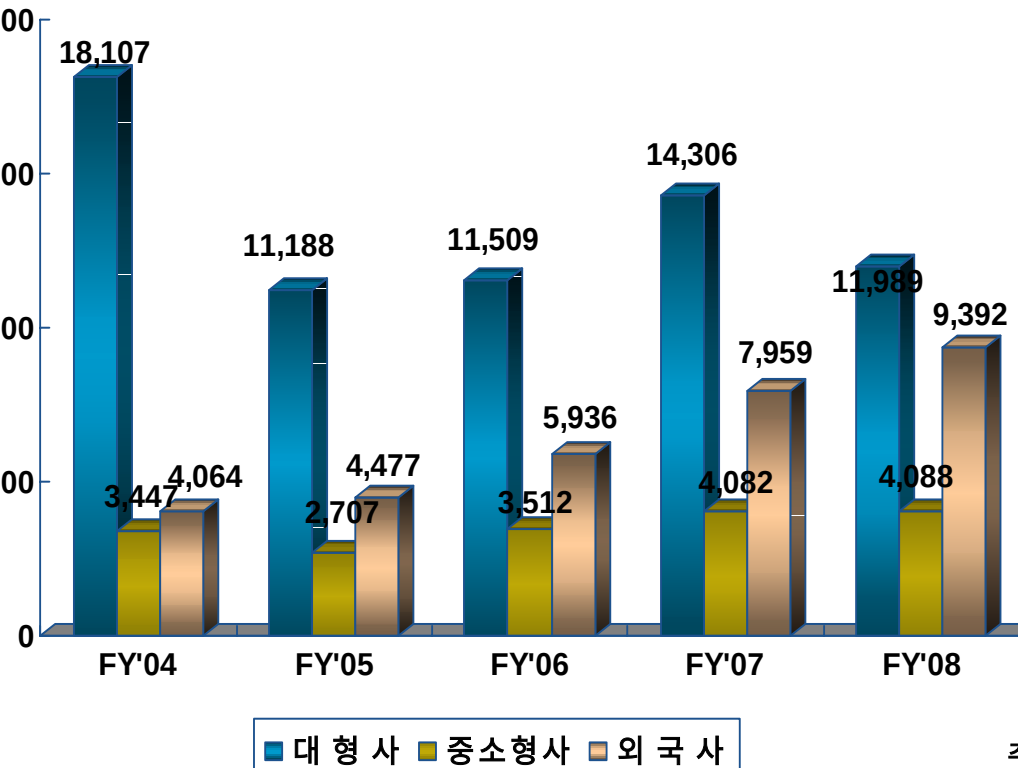
III. 장래 손익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2- 당기손익



- ✓ 투자수익률 0.5%p 상승
- ✓ 사업비율/보험금지급률 5% 하락
- ✓ 2차년도 이후 신계약물량 3% 증가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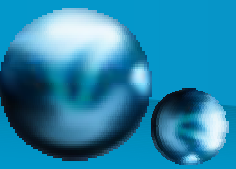
그룹별 당기손익 증가 폭(억원)

	FY'04	FY'05	FY'06	FY'07	FY'08
대형사	4,626	8,154	8,052	8,728	9,034
중소형사	1,094	1,782	2,009	2,122	2,242
외국사	1,190	1,817	2,125	2,319	2,575
전사	6,910	11,753	12,187	13,168	13,851

지급여력비율 및 감소폭(%, %p)

	FY'04	FY'05	FY'06	FY'07	FY'08
전사	242 (12)	255 (22)	262 (31)	268 (40)	271 (47)

주: 기본대비 감소 폭



IV. 향후 과제

1. 생명보험회사

2. 감독 및 정책당국

IV. 향후 과제: 생명보험회사

경영효율화
달성을 통한
수익성 확보

-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통해 이차역마진 극복
- 보험분야에서의 수익 창출 확대
 -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및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 생존특약 부가시 경험률 추세 등을 고려
 - 개인형 실손보상 건강보험에 대한 시스템 정비(중복가입, 위험률분석)
- 비용의 효율성 제고
 - 내실경영에 주력
 - 단기적 시장확대를 위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지양

가격산출,
상품개발 및
운용

- 합리적 가격산출 체계 마련
 - 다양한 확률적 시나리오를 통해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 산출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상품개발
 - 기업 복지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퇴직보험)
 - 생존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CI, DI)
 - 자산축적형 금융상품(VUL)
- 자연적 리스크 헤지를 위한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
 - 금리고정/금리연동/실적배당, 유배당/무배당, 생존/사망, 신/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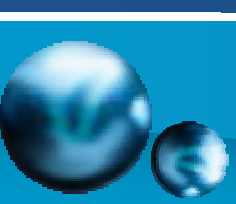
IV. 향후 과제: 생명보험회사

판매채널 전략 강화

- 판매채널의 차별적 포지셔닝 및 전통 판매채널의 고부가가치화
 - 회사의 특성에 맞는 채널 구축 VS 다양한 믹스 전략
 - 고비용의 설계사 조직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 신규채널인 방카슈랑스, 홈쇼핑 등의 전략적 활용 및 건전한 정착
 - 과대 광고 및 불완전 판매 지양
- 교차모집(2006.9 시행 예정)에 대비한 구체적 시행방안 및 자사 소속 설계사 관리방안 마련

자산운용능력 제고

- 저금리 현상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이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적절한 해외투자 수단 활용
 -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 절감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능력 배양
 - 장기계약에 매칭가능한 장기투자처의 발굴 및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



IV. 향후 과제: 생명보험회사

가치중심의 손익 관리

- 생명보험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가치중심의 손익관리 방안 마련
 - 미래가치 기준의 장기손익 관리
 - 내재가치(embedded value)를 내부손익 관련 지표로 활용
- 가치중심의 성과 측정 수단 마련
 - 각종 옵션과 보증이 부가된 상품은 향후 보험사 가치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한 가치 관리 필요
 - 자본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재가치 활용

리스크관리 중심의 경영

- 리스크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경영체제 수립
 -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리스크관리를 통한 수익 극대화가 외형 성장전략보다 바람직

IV. 향후 과제: 감독 및 정책당국

탄력적인 감독 정책

- 시장 여건에 따른 정책시행의 탄력적 운용
 - 저금리 현상 지속시 생보사 장래 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투자수익률 0.5%p 하락시 당기순익 6천억원 정도 감소)
 - 생보사의 여력을 감안한 능동적인 정책 및 감독 기조 유지
- 현행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2조 1천억원 수준의 당기이익 필요

재무건전성 중심의 감독

- 지급여력제도 보완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자산리스크 반영이 미흡하므로, 단기적으로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자산별 리스크 차이를 반영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의 단계적 도입 필요
 -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IV. 향후 과제: 감독 및 정책당국

부채평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표준이율의 탄력성 강화
 - 시장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이율제도 운영
- 보험료결손제도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강화
-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

유배당보험 판매 유인

- 현행 이익잉여금 배분기준 및 이원별 배당제도 개선 검토
 - 적절한 계약자배당 및 이익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내부유보가능연수를 연장, 결손발생시 재원으로 활용
- 장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치명적질병(CI), 장기간병(LTC), 소득보상(DI)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배당보험 판매 유도

IV. 향후 과제: 감독 및 정책당국

소비자보호 및 시장의 신뢰구축

□ 방카슈랑스 감독 체계 정비

- 방카슈랑스의 안정 정착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 구축
-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적 감독

□ 공시제도 충실화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정하고 충분한 공시제도의 마련
- 배당관련 공시 및 보험사 리스크 규모, 리스크 관리 수준 등에 대한 공시지침 마련

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유도

- 민영 생보사와 유사보험간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제도 정비
- 민영 생보사와 유사보험간 가입대상 및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설정 필요

감사합니다

